

2025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25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차례 [ 2025 이슈페이퍼 모음집 ]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01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Ⅰ):

### 만 2세와 만 3세 시기의 변화 · 5

1 서론 .....	6
2 만 3세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 .....	7
3 만 2세와 만 3세 시기의 특성별 변화 .....	9
4 제언 .....	19

## 02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Ⅱ):

### 만 5세와 초등 1학년 시기의 변화 · 23

1 서론 .....	24
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 .....	25
3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특성별 변화 .....	27
4 제언 .....	39

## 0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 · 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4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실태 .....	44
3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관련 의견 .....	54
4 정책 제언 .....	56
5 기대 효과 .....	57

**04**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성과분석 • 59

1 서론 .....	60
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분석 .....	61
3 정책 제언 .....	72
4 기대 효과 .....	72

**05** 영유아기 인간상 및 미래 역량의 탐색:  
부모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75

1 배경 .....	76
2 부모 의견 .....	77
3 전문가 의견 .....	85
4 제언 .....	89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 I): 만 2세와 만 3세 시기의 변화<sup>1)</sup>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본 글에서는 생애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아의 발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한 1차년도 조사와 만 3세반 시점의 2차년도 추적조사를 통해 전반적 발달과 기관 적응,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의 변화를 비교·분석함.
- 인지발달(K-WPPSI-IV)에서는 전체 IQ 평균은 두 시점 간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일부 하위 과제(상식, 위치찾기, 모양맞추기)는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짐. 반면 적응행동(K-Vineland-2)은 생활기술·사회성 영역을 중심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또한 2차년도에 유의하게 증가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IQ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의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여가, 대처기술, 소근육 영역에서 여아의 향상 폭이 뚜렷하였음.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모양맞추기 과제에서 점수가 감소함.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전체 IQ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생활기술·개인·가정 영역에서 고소득 아동의 향상이 뚜렷하였고, 대근육 발달은 두 시점 모두 고소득 아동이 높은 점수를 유지함.
-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에 따라 발달 궤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기 개입이 요구됨.

1) 본 글은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로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함.

## 1 서론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시간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 보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함(Prime, Wade, & Browne, 2020).
- ▶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단 연구(Deoni, Beauchemin, Volpe, D'Sa, & Resonance Consortium, 2021)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아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극, 창의적 놀이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유아의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함.**
  -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대규모 중단 연구를 활용하여 2020년과 2021년 유아의 일반적인 인지 점수와 이전 10년간의 인지 점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유아는 이전에 태어난 유아에 비해 언어, 비언어, 신체, 인지 및 수행 능력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 경험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유아의 발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함(Deoni et al, 2021).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의 부재가 아동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Egan, Pope, Moloney, Hoyne, & Beatty, 2021)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일랜드의 1~10세 아동을 둔 50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놀이와 학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 부모들은 ECEC 폐쇄와 휴교령 기간 자녀의 짜증, 불안, 집착, 지루함, 자극 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부모는 봉쇄 조치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했다고 언급함.
- ▶ **영국의 Urbina-Garcia(2020)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고 사회적 고립은 어린이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발달은 아동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증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고립의 잠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함(Urbina-Garcia, 2020).

- ▶ 본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2 만 3세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sup>2)</sup>

### 가. 인지발달 비교

- ▶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검사 중 그림명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은 12.19(SD = 2.81)이고, 2차년도 평균은 13.47(SD = 3.12)로, 1차년도 보다 2차년도에 그림명명 소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짐. 이를 제외한 모든 소검사와 지표점수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1]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N* = 77, *M*(*SD*)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i>t</i>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토막짜기	11.70(2.67)	12.01(2.38)	-.861
상식	11.43(2.54)	11.35(3.09)	.241
그림기억	11.44(2.89)	10.84(2.55)	1.729
위치찾기	10.42(2.84)	10.79(2.36)	-1.011
모양맞추기	11.01(3.01)	11.31(2.56)	-.753
수용어회 <sup>2)</sup>	11.94(3.56)	11.88(3.21)	.109
그림명명 <sup>2)</sup>	12.19(2.81)	13.47(3.12)	-2.730*
언어이해지표	112.84(15.75)	110.25(16.86)	1.446
시공간지표	107.21(13.97)	109.00(11.81)	-1.011
작업기억지표	106.75(15.42)	105.88(13.02)	.455
전체IQ	112.18(14.66)	110.29(13.91)	1.229

2) 인지발달 검사(K-WPPSI-IV)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한 검사이며,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는 부모 평정에 의한 결과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는데, 만 2세 시기에 참여한 100명을 추적하여 인지발달 검사에는 총 89명, 적응행동 검사에는 95명이 참여함.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어휘습득 지표 <sup>2)</sup>	113.25(14.80)	117.03(15.79)	-1.903
비언어지표	108.32(14.43)	108.81(12.69)	-.295
일반능력지표	111.99(14.71)	111.84(14.47)	.086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소검사의 수용어휘, 그림명명과 추가지표의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32명임.

\*  $p < .05$ .

### 나. 적응행동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점수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6.77(SD = 17.74), 2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12.13(SD = 14.52)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표 2]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N = 83, M(SD)

영역	v-척도점수 <sup>1)</sup> / 표준점수 <sup>1)</sup>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하위	수용	16.06(2.85)	16.46(2.47)	-1.384
	표현	16.36(2.78)	16.46(2.32)	-0.368
	개인	16.25(3.59)	17.46(3.17)	-2.934**
	가정	17.37(3.43)	17.96(2.79)	-1.843
	대인관계	16.31(4.02)	17.46(3.02)	-2.422*
	놀이 및 여가	15.52(2.99)	16.59(2.94)	-3.164**
	대처기술	16.10(2.90)	17.70(2.89)	-4.498***
	대근육	15.52(2.11)	14.92(2.45)	1.83
	소근육	15.29(3.65)	16.70(3.05)	-3.711***
주	의사소통 영역	107.18(14.79)	109.13(12.98)	-1.475
	생활기술 영역	112.17(20.21)	117.29(16.62)	-2.666**
	사회성 영역	105.63(18.06)	113.40(15.76)	-3.729***
	운동기술 영역	102.93(16.87)	105.86(15.10)	-1.449
적응행동 조합점수		106.77(17.74)	112.13(14.52)	-3.036**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  $p < .05$ , \*\*  $p < .01$ , \*\*\*  $p < .001$ .

- 주영역에서는 생활기술 영역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평균이 112.17(SD = 20.21), 2차년도 평균이 117.29(SD = 16.62)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성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이 105.63( $SD = 18.06$ ), 2차년도 평균이 113.40( $SD = 15.76$ )으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주영역 표준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 3 만 2세와 만 3세 시기의 특성별 변화

#### 가. 성별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3]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i>M(SD)</i>		<i>F</i>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토막짜기	남(n=43)	11.30(2.47)	12.16(2.19)	.442	.386	2.984
	여(n=34)	12.21(2.86)	11.82(2.62)			
	전체(n=77)	11.70(2.67)	12.01(2.38)			
상식	남(n=43)	11.26(2.70)	11.37(3.20)	.101	.092	.453
	여(n=34)	11.65(2.35)	11.32(3.00)			
	전체(n=77)	11.43(2.54)	11.35(3.09)			
그림기억	남(n=43)	11.26(2.77)	10.62(2.19)	2.871	.764	.010
	여(n=34)	11.68(3.06)	11.12(2.95)			
	전체(n=77)	11.44(2.89)	10.84(2.55)			
위치찾기	남(n=43)	9.91(2.94)	10.56(2.20)	.820	3.332	.684
	여(n=34)	11.06(2.60)	11.09(2.56)			
	전체(n=77)	10.42(2.84)	10.79(2.36)			
모양 맞추기	남(n=43)	10.81(3.12)	11.00(2.45)	.610	1.336	.101
	여(n=34)	11.26(2.90)	11.71(2.67)			
	전체(n=77)	11.01(3.01)	11.31(2.56)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언어이해 지표	남(n=43)	110.86(15.78)	109.72(16.90)	2.373	.749	.831
	여(n=34)	115.35(15.59)	110.91(17.05)			
	전체(n=77)	112.84(15.75)	110.25(16.86)			
시공간 지표	남(n=43)	105.42(14.02)	108.54(11.56)	.817	1.162	.703
	여(n=34)	109.47(13.76)	109.59(12.25)			
	전체(n=77)	107.21(13.97)	109.00(11.81)			
작업기억 지표	남(n=43)	104.6(16.20)	104.51(11.71)	.251	2.273	.194
	여(n=34)	109.44(14.17)	107.62(14.51)			
	전체(n=77)	106.75(15.42)	105.88(13.02)			
전체 IQ	남(n=43)	110.07(14.00)	109.302(12.56)	1.727	1.482	.674
	여(n=34)	114.85(15.26)	111.53(15.54)			
	전체(n=77)	112.18(14.66)	110.29(13.91)			
비언어 지표	남(n=43)	106.14(15.16)	108.09(10.81)	.030	1.541	1.036
	여(n=34)	111.09(13.15)	109.71(14.86)			
	전체(n=77)	108.32(14.43)	108.81(12.69)			
일반능력 지표	남(n=43)	109.79(14.22)	111.49(13.81)	.053	.996	1.550
	여(n=34)	114.76(15.05)	112.29(15.47)			
	전체(n=77)	111.99(14.71)	111.84(14.47)			

## 2) 적응행동 비교

▶ 한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 $F = 7.830^{**}$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4]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수용	남(n=48)	15.88(3.15)	16.35(2.22)	1.709	.438	.109
	여(n=35)	16.31(2.39)	16.60(2.80)			
	전체(n=83)	16.06(2.85)	16.46(2.47)			
표현	남(n=48)	15.96(3.12)	16.65(2.39)	.003	.255	7.537**
	여(n=35)	16.91(2.15)	16.20(2.22)			
	전체(n=83)	16.36(2.78)	16.46(2.32)			
개인	남(n=48)	16.13(3.84)	17.63(3.25)	7.624**	.005	.706
	여(n=35)	16.43(3.27)	17.23(3.08)			
	전체(n=83)	16.25(3.59)	17.46(3.17)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가정	남(n=48)	17.60(3.68)	18.17(2.70)	3.332	.696	.010
	여(n=35)	17.06(3.09)	17.69(2.93)			
	전체(n=83)	17.37(3.43)	17.96(2.79)			
대인관계	남(n=48)	15.48(4.12)	17.33(2.78)	4.598	3.357	3.173
	여(n=35)	17.46(3.64)	17.63(3.35)			
	전체(n=83)	16.31(4.02)	17.46(3.02)			
놀이 및 여가	남(n=48)	15.21(2.92)	16.42(2.83)	9.223**	1.037	.219
	여(n=35)	15.94(3.09)	16.83(3.11)			
	전체(n=83)	15.52(2.99)	16.59(2.94)			
대처기술	남(n=48)	15.65(3.21)	17.38(2.74)	18.964***	3.036	.172
	여(n=35)	16.71(2.33)	18.14(3.07)			
	전체(n=83)	16.10(2.90)	17.70(2.89)			
대근육	남(n=48)	15.42(2.35)	14.81(2.53)	3.222	.397	.000
	여(n=35)	15.66(1.75)	15.06(2.36)			
	전체(n=83)	15.52(2.11)	14.92(2.45)			
소근육	남(n=48)	14.60(3.57)	16.46(3.02)	12.036**	2.994	1.899
	여(n=35)	16.23(3.61)	17.03(3.10)			
	전체(n=83)	15.29(3.65)	16.70(3.05)			
의사소통 영역	남(n=48)	105.42(17.24)	109.38(12.22)	1.427	.416	3.239
	여(n=35)	109.60(10.29)	108.80(14.12)			
	전체(n=83)	107.18(14.79)	109.13(12.98)			
생활기술 영역	남(n=48)	112.50(21.62)	118.46(16.40)	6.459*	.239	.259
	여(n=35)	111.71(18.41)	115.69(17.01)			
	전체(n=83)	112.17(20.21)	117.29(16.62)			
사회성 영역	남(n=48)	102.52(18.95)	112.17(14.51)	12.394**	2.771	1.112
	여(n=35)	109.89(16.06)	115.09(17.41)			
	전체(n=83)	105.63(18.06)	113.40(15.76)			
적응행동 조합점수	남(n=48)	104.50(19.19)	111.94(13.13)	7.830**	.872	1.916
	여(n=35)	109.89(15.26)	112.40(16.43)			
	전체(n=83)	106.77(17.74)	112.13(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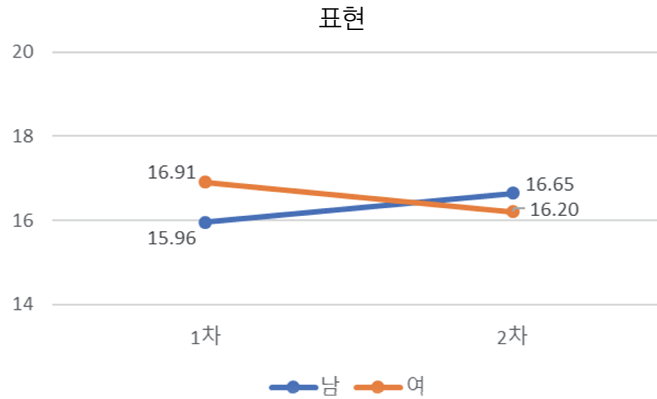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수용 하위영역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표현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 = 7.537^{***}$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표현 능력에서 초기에는 여아가 우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아가 발달 속도를 높이며 성별 차이가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표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단위: 점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만 3세반 남아의 표현 하위영역 점수는 차수에 따라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 또한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6.459^*$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개인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 $F = 7.624^{**}$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가정 하위영역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 사회성 영역에서도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2.394^{**}$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놀이 및 여가( $F = 9.223^{**}$ ), 대처기술( $F = 18.964^{***}$ )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음( $F = 12.036^{**}$ ).

## 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토막짜기	맞벌이(n=52)	11.87(2.50)	12.06(2.44)	.399	.881	.034
	외벌이(n=20)	11.30(3.23)	11.65(2.23)			
	전체(n=72)	11.71(2.71)	11.94(2.38)			
상식	맞벌이(n=52)	11.58(2.33)	11.44(2.96)	.046	.167	.318
	외벌이(n=20)	11.10(3.06)	11.40(3.36)			
	전체(n=72)	11.44(2.54)	11.43(3.05)			
그림기억	맞벌이(n=52)	11.79(2.77)	10.96(2.18)	1.160	1.184	.910
	외벌이(n=20)	10.75(3.19)	10.70(3.47)			
	전체(n=72)	11.50(2.91)	10.89(2.58)			
위치찾기	맞벌이(n=52)	10.35(2.73)	10.52(2.64)	1.120	.892	.438
	외벌이(n=20)	10.55(2.86)	11.30(1.53)			
	전체(n=72)	10.40(2.75)	10.74(2.40)			
모양 맞추기	맞벌이(n=52)	11.46(2.91)	11.44(2.59)	.008	2.998	.018
	외벌이(n=20)	10.40(3.25)	10.50(2.44)			
	전체(n=72)	11.17(3.03)	11.18(2.56)			
언어이해 지표	맞벌이(n=52)	113.62(15.10)	111.56(16.08)	1.530	.778	.072
	외벌이(n=20)	110.90(17.78)	107.70(18.32)			
	전체(n=72)	112.86(15.81)	110.49(16.69)			
시공간 지표	맞벌이(n=52)	109.02(13.15)	109.54(12.11)	.177	2.701	.028
	외벌이(n=20)	104.25(16.11)	105.45(9.99)			
	전체(n=72)	107.69(14.08)	108.40(11.64)			
작업기억 지표	맞벌이(n=52)	107.63(15.21)	105.48(13.15)	.008	.051	.747
	외벌이(n=20)	105.00(15.79)	106.75(13.47)			
	전체(n=72)	106.90(15.31)	105.83(13.15)			
전체 IQ	맞벌이(n=52)	113.92(13.40)	111.29(13.24)	1.318	1.987	.089
	외벌이(n=20)	108.80(17.25)	107.25(15.07)			
	전체(n=72)	112.50(14.63)	110.17(13.79)			
비언어 지표	맞벌이(n=52)	109.85(13.54)	109.35(12.84)	.000	1.567	.063
	외벌이(n=20)	105.60(16.25)	106.05(12.25)			
	전체(n=72)	108.67(14.35)	108.43(12.68)			
일반능력 지표	맞벌이(n=52)	113.58(13.77)	112.75(13.84)	.056	1.745	.034
	외벌이(n=20)	108.90(16.82)	108.80(15.52)			
	전체(n=72)	112.28(14.71)	111.65(14.32)			

## 2) 적응행동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 $F = 10.305^{**}$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6]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수용	맞벌이(n=56)	15.96(2.78)	16.34(2.33)	1.706	.059	.035
	외벌이(n=22)	16.05(3.12)	16.55(2.91)			
	전체(n=78)	15.99(2.86)	16.40(2.49)			
표현	맞벌이(n=56)	16.45(2.91)	16.45(2.33)	1.462	.882	1.462
	외벌이(n=22)	15.55(2.34)	16.27(2.43)			
	전체(n=78)	16.19(2.78)	16.40(2.34)			
개인	맞벌이(n=56)	16.21(3.84)	17.05(3.22)	9.262**	1.128	1.619
	외벌이(n=22)	16.36(2.84)	18.41(3.07)			
	전체(n=78)	16.26(3.57)	17.44(3.21)			
가정	맞벌이(n=56)	17.34(3.55)	17.86(2.82)	5.860*	.215	.968
	외벌이(n=22)	17.32(3.46)	18.55(2.86)			
	전체(n=78)	17.33(3.50)	18.05(2.83)			
대인관계	맞벌이(n=56)	16.30(4.34)	17.36(2.90)	6.179*	.019	.326
	외벌이(n=22)	16.09(3.52)	17.77(3.38)			
	전체(n=78)	16.24(4.10)	17.4(3.03)			
놀이 및 여가	맞벌이(n=56)	15.70(3.03)	16.77(3.06)	9.430**	.601	.136
	외벌이(n=22)	15.05(3.11)	16.41(2.87)			
	전체(n=78)	15.51(3.04)	16.67(3.00)			
대처기술	맞벌이(n=56)	16.29(3.06)	17.86(2.77)	16.207***	.431	.086
	외벌이(n=22)	15.77(2.49)	17.59(3.13)			
	전체(n=78)	16.14(2.90)	17.78(2.86)			
대근육	맞벌이(n=56)	15.34(2.22)	14.73(2.43)	1.182	1.700	.245
	외벌이(n=22)	15.73(1.91)	15.50(2.70)			
	전체(n=78)	15.45(2.13)	14.95(2.52)			
소근육	맞벌이(n=56)	15.38(3.91)	16.71(2.87)	12.447**	.015	.199
	외벌이(n=22)	15.09(3.22)	16.82(3.57)			
	전체(n=78)	15.29(3.71)	16.74(3.06)			
의사소통 영역	맞벌이(n=56)	107.07(15.07)	108.77(12.24)	2.994	.115	.408
	외벌이(n=22)	105.00(14.66)	108.68(15.28)			
	전체(n=78)	106.49(14.89)	108.74(13.06)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별이	차수*맞별이
생활기술 영역	맞별이(n=56)	112.04(21.27)	115.66(16.70)	10.306**	.623	2.375
	외별이(n=22)	112.00(18.36)	122.32(17.26)			
	전체(n=78)	112.03(20.37)	117.54(17.02)			
사회성 영역	맞별이(n=56)	106.29(19.12)	113.88(15.49)	12.548**	.171	.191
	외별이(n=22)	103.73(16.78)	113.45(17.39)			
	전체(n=78)	105.56(18.42)	113.76(15.94)			
적응행동 조합점수	맞별이(n=56)	106.71(19.12)	111.61(13.98)	10.305**	.030	.693
	외별이(n=22)	105.64(15.48)	113.95(17.06)			
	전체(n=78)	106.41(18.08)	112.27(14.84)			

\*  $p < .05$ , \*\*  $p < .01$ , \*\*\*  $p < .001$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별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별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 $F = 10.306^{**}$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개인( $F = 9.262^{**}$ ), 가정( $F = 5.860^*$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별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별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 $F = 12.548^{**}$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대인관계( $F = 6.179^*$ ), 놀이 및 여가( $F = 9.430^{**}$ ), 대처기술( $F = 16.207^{***}$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함.
-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F = 12.447^{**}$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다. 가구소득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기]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토막짜기	600미만(n=29)	11.79(2.78)	11.45(2.44)	.133	.527	1.574
	600이상(n=43)	11.65(2.69)	12.28(2.30)			
	전체(n=72)	11.71(2.71)	11.94(2.38)			
상식	600미만(n=29)	11.38(2.54)	10.97(3.21)	.051	.589	.913
	600이상(n=43)	11.49(2.57)	11.74(2.94)			
	전체(n=72)	11.44(2.54)	11.43(3.05)			
그림기억	600미만(n=29)	11.76(2.81)	10.90(3.00)	3.049	.165	.317
	600이상(n=43)	11.33(3.00)	10.88(2.28)			
	전체(n=72)	11.50(2.91)	10.89(2.58)			
위치찾기	600미만(n=29)	11.24(2.75)	10.66(2.69)	.223	1.799	3.921
	600이상(n=43)	9.84(2.63)	10.79(2.21)			
	전체(n=72)	10.40(2.75)	10.74(2.40)			
모양 맞추기	600미만(n=29)	11.03(3.32)	11.07(2.63)	.002	.143	.002
	600이상(n=43)	11.26(2.85)	11.26(2.55)			
	전체(n=72)	11.17(3.03)	11.18(2.56)			
언어이해 지표	600미만(n=29)	111.90(15.85)	106.45(17.70)	2.248	1.531	1.800
	600이상(n=43)	113.51(15.93)	113.21(15.61)			
	전체(n=72)	112.86(15.81)	110.49(16.69)			
시공간 지표	600미만(n=29)	107.59(15.30)	106.55(11.99)	.052	.430	.617
	600이상(n=43)	107.77(13.39)	109.65(11.36)			
	전체(n=72)	107.69(14.08)	108.40(11.64)			
작업기억 지표	600미만(n=29)	110.28(15.22)	105.59(14.37)	.660	.909	2.205
	600이상(n=43)	104.63(15.12)	106.00(12.44)			
	전체(n=72)	106.90(15.31)	105.83(13.15)			
전체 IQ	600미만(n=29)	112.38(15.10)	107.17(15.36)	2.917	.759	2.152
	600이상(n=43)	112.58(14.48)	112.19(12.40)			
	전체(n=72)	112.50(14.63)	110.17(13.79)			
비언어 지표	600미만(n=29)	110.55(14.36)	106.55(14.45)	.252	.000	3.474
	600이상(n=43)	107.40(14.38)	109.70(11.33)			
	전체(n=72)	108.67(14.35)	108.43(12.68)			
일반능력 지표	600미만(n=29)	111.66(15.47)	107.79(15.34)	.425	1.580	2.352
	600이상(n=43)	112.70(14.35)	114.26(13.14)			
	전체(n=72)	112.28(14.71)	111.65(14.32)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 2) 적응행동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6.023^*$ )와 차수( $F = 6.850^*$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는 1차년도( $M = 105.00$ ,  $SD = 19.78$ )에 비해 2차년도( $M = 114.33$ ,  $SD = 13.55$ )에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수용	600미만(n=30)	15.93(2.56)	15.83(2.73)	1.056	.855	1.833
	600이상(n=48)	16.02(3.06)	16.75(2.28)			
	전체(n=78)	15.99(2.86)	16.40(2.49)			
표현	600미만(n=30)	16.23(2.74)	15.80(2.40)	.097	.728	3.572
	600이상(n=48)	16.17(2.83)	16.77(2.25)			
	전체(n=78)	16.19(2.78)	16.40(2.34)			
개인	600미만(n=30)	16.87(3.20)	17.03(3.70)	5.227*	.065	3.615
	600이상(n=48)	15.88(3.76)	17.69(2.88)			
	전체(n=78)	16.26(3.57)	17.44(3.21)			
가정	600미만(n=30)	17.40(3.68)	18.10(2.96)	4.536*	.020	.002
	600이상(n=48)	17.29(3.43)	18.02(2.77)			
	전체(n=78)	17.33(3.50)	18.05(2.83)			
대인관계	600미만(n=30)	16.77(4.15)	16.87(3.04)	4.168*	.010	3.390
	600이상(n=48)	15.92(4.08)	17.85(2.99)			
	전체(n=78)	16.24(4.10)	17.47(3.03)			
놀이 및 여가	600미만(n=30)	15.57(2.73)	16.30(3.09)	8.676**	.177	.876
	600이상(n=48)	15.48(3.26)	16.90(2.95)			
	전체(n=78)	15.51(3.04)	16.67(3.00)			
대처기술	600미만(n=30)	16.70(2.35)	17.37(2.82)	14.815***	.045	4.366*
	600이상(n=48)	15.79(3.17)	18.04(2.88)			
	전체(n=78)	16.14(2.90)	17.78(2.86)			
대근육	600미만(n=30)	15.80(1.81)	14.43(3.08)	3.661	.104	4.136*
	600이상(n=48)	15.23(2.30)	15.27(2.06)			
	전체(n=78)	15.45(2.13)	14.95(2.52)			
소근육	600미만(n=30)	15.67(3.39)	16.23(3.13)	10.608**	.027	3.308
	600이상(n=48)	15.06(3.92)	17.06(3.01)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전체(n=78)	15.29(3.71)	16.74(3.06)			
의사소통 영역	600미만(n=30)	106.47(13.70)	105.33(14.39)	1.328	.905	3.836
	600이상(n=48)	106.50(15.73)	110.88(11.82)			
	전체(n=78)	106.49(14.89)	108.74(13.06)			
생활기술 영역	600미만(n=30)	114.17(19.66)	116.47(19.13)	5.923*	.050	1.674
	600이상(n=48)	110.69(20.90)	118.21(15.73)			
	전체(n=78)	112.03(20.37)	117.54(17.02)			
사회성 영역	600미만(n=30)	108.00(16.50)	110.93(15.82)	10.633**	.009	3.738
	600이상(n=48)	104.04(19.53)	115.52(15.92)			
	전체(n=78)	105.56(18.42)	113.76(15.94)			
적응행동 조합점수	600미만(n=30)	108.67(14.99)	108.97(16.38)	6.850*	.064	6.023*
	600이상(n=48)	105.00(19.78)	114.33(13.55)			
	전체(n=78)	106.41(18.08)	112.27(14.84)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차수( $F = 5.923^*$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인( $F = 5.227^*$ ), 가정( $F = 4.536^*$ )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에 따른 점수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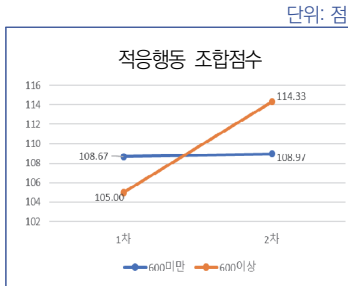
- 차수( $F = 10.633^{**}$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다만, 대처기술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4.366^*$ )와 차수( $F = 14.815^{***}$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유아는 1차년도( $M = 15.79$ ,  $SD = 3.17$ )에 비해 2차년도( $M = 18.04$ ,  $SD = 2.88$ )에 대처기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유아는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대인관계( $F = 4.168^*$ ), 놀이 및 여가( $F = 8.676^{**}$ )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4.136^*$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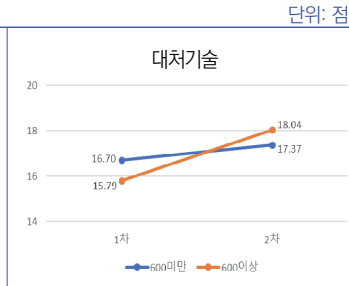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유아는 차수에 따라 대근육 하위영역

점수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 또한 차수에 따라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근육( $F = 10.608^{**}$ )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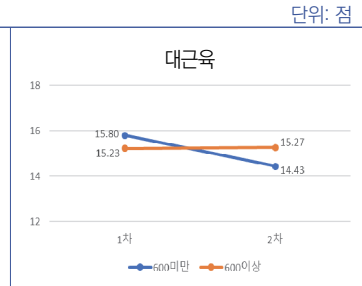
[그림 4] 적응행동 조합점수에서 가구 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대처기술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6]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4 제언

-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최혜영 외, 2021, Prime, Wade, & Browne, 2020)하고 있으므로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기 개입이 요구됨.

  - 분석 결과, 만 3세반 유아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하면, 인지발달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림명명 항목이 2차년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적응행동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특히,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함.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대처기술,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김경근(2005)은 교육격차가 학교의 교육여건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초래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며,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음.
-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정환경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분석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대처기술에서는 1차 시점에서 저소득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2차 시점에서는 고소득 아동의 점수가 크게 향상됨. 이는 고소득 가정의 환경적 자원과 교육적 지원이 아동의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Bradley & Corwyn(2002)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함.

- 대근육 발달은 1차 시점부터 고소득 아동이 우위를 보였으며, 2차 시점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유지됨. 이는 대근육 발달이 주거 환경, 놀이·체육 시설 접근성, 신체활동 기회 등 물리적·구조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과 일치함. Stodden et al.(2008)은 아동의 기본운동능력이 신체활동 기회와 환경적 조건에 의해 좌우됨을 강조함.
-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예방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도입되어야 함.**

-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유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유아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유아로 선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관계부처합동, 2023: 17). 중앙부처의 정책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완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공통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위기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함.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23).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교육부.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아동발달과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72(2), 33-66.
-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2), 29-46.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3>.
- Deoni, S. C. L., Beauchemin, J., Volpe, A., D'Sa, V., & The RESONANCE Consortium. (2021).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Initial findings in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of child health. *MedRxiv Preprint*. <https://doi.org/10.1101/2021.08.10.21261846>
- Egan, S. M., Pope, J., Moloney, M., Hoyne, C., & Beatty, C. (2021). Missing early education and care during the pandemic: The socio-emotional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9, 925-934. <https://doi.org/10.1007/s10643-021-01207-z>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https://doi.org/10.1037/amp0000660>
- Stodden, D. F., Goodway, J. D., Langendorfer, S. J., Robertson, M. A., Rudisill, M. E., Garcia, C., & Garcia, L. E. (2008).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role of motor skill competence in physical activity: An emergent relationship. *Quest*, 60(2), 290-306. <https://doi.org/10.1080/00336297.2008.10483582>
- Urbina-Garcia, A. (2020). Young children's mental health: Impact of social isolatio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effective strategies.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5081. <https://doi.org/10.3389/fpsyg.2020.585081>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 궤적 분석(II): 만 5세와 초등 1학년 시기의 변화<sup>1)</sup>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본 글에서는 생애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아의 발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년도 조사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2차년도 추적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의 변화를 분석함.
- 인지발달(K-WPPSI-IV)에서는 전체 IQ 점수는 두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일부 하위 과제(상식, 위치찾기, 모양맞추기)는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짐. 반면 적응행동(K-Vineland-2)은 생활기술, 사회성 영역을 중심으로 2차년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져, 초등학교 진학 이후 아동의 전반적 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체 IQ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의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여가, 대처기술, 소근육 영역에서 여아의 향상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음.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생활기술·개인·가정 영역에서는 고소득 집단 아동이 더 큰 향상을 보임.
-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이 인지적 성취보다는 생활기술과 사회적 적응 능력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경험하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에 따라 발달 영역별 차별적 궤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 이에 아동의 생활기술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본 글은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로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함.

## 1 서론

-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교육 상황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점으로 전가시킨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도 있음.

  - 이는 Bourdieu(1973)의 문화자본 이론에 따라, 부모의 학력·문화적 배경이 아동의 학습자본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됨을 설명함.
- 아동·청소년의 공부 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습 시간의 변화가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 이러한 결과는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부모의 감독, 정보 제공, 시간관리 등의 격차가 아동의 시간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이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유한구, 2006: 9).

  - 비빈곤 가정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의 유아기 문제행동, 취학전 학습준비도,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은 비빈곤 유아보다 빈곤경험이 있는 유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완정, 김미나, 2018).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학습과 발달 측면에서의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 Glynn, Davis, Luby, Baram과 Sandman(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아의 행동 문제가 증가했으나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우울 증상과 외현화 행동에서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함.
- 본 글에서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2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비교<sup>2)</sup>

### 가.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지표 중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은 110.65( $SD = 14.21$ ), 2차년도 평균은 105.63( $SD = 15.09$ )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짐.
-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차이는 없으나, 언어이해지표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졌음.

**[표 1]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N = 40, 단위: 점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토막짜기	12.25(3.90)	12.45(3.82)	-.282
상식	11.95(2.93)	10.75(3.43)	2.463*
행렬추리	11.48(4.31)	11.50(3.16)	-.037
동형찾기	11.75(3.12)	12.78(4.02)	-1.784
그림지역	10.90(3.38)	11.33(3.32)	-.846
공통성	11.48(2.42)	10.95(2.40)	1.650
공통그림찾기	11.98(2.77)	11.43(2.09)	1.327
선택하기	10.73(2.90)	10.13(2.95)	1.185
위치찾기	12.28(2.68)	11.15(3.08)	2.278*
모양맞추기	11.93(2.87)	10.15(2.68)	3.323**
선택하기(비정렬)	10.85(3.09)	9.98(2.87)	1.636
선택하기(정렬)	10.03(3.00)	9.95(2.75)	.149
언어이해지표	110.65(14.21)	105.63(15.09)	2.736**
시공간지표	111.58(16.77)	106.90(15.67)	1.735
유동추론지표	111.45(19.22)	109.80(12.24)	.634
작업기억지표	110.73(15.07)	108.53(16.55)	.949
처리속도 지표	107.45(15.53)	108.73(16.77)	-.527

2) 인지발달 검사(K-WPPSI-IV)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한 검사이며,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는 부모 평정에 의한 결과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는데, 만 5세 시기에 참여한 100명을 추적하여 인지발달 검사에는 총 40명, 적응행동 검사에는 57명이 참여함.

소검사/지표	환산점수 <sup>1)</sup> / 지표점수 <sup>1)</sup>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전체Q	111.25(17.05)	111.20(14.33)	.026
비언어지표	110.98(17.72)	112.70(14.56)	-.781
일반능력지표	111.73(17.89)	109.08(15.16)	1.182
인지효율성 지표	109.45(15.89)	108.90(16.84)	.218

주: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  $p < .05$ , \*\*  $p < .01$ .

## 나. 적응행동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1( $SD = 13.88$ ), 2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15.89( $SD = 16.40$ )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표 2]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N = 57, M(SD)$

영역	v-척도점수 <sup>1)</sup> / 표준점수 <sup>1)</sup>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하위	수용	16.47(2.49)	16.30(2.46)	.550
	표현	17.00(2.65)	17.33(2.77)	-.912
	개인	16.70(3.16)	17.54(2.39)	-2.605**
	가정	16.37(2.96)	17.51(3.51)	-3.714***
	대인관계	17.67(2.60)	18.32(2.37)	-2.157*
	놀이 및 여가	16.09(3.25)	17.32(3.29)	-3.115**
	대처기술	16.72(2.81)	17.68(2.99)	-2.768**
	대근육	14.67(2.07)	15.14(1.14)	-2.169*
	소근육	15.75(1.90)	16.61(1.71)	-3.283**
주	의사소통 영역	110.82(12.86)	112.33(16.18)	-.886
	생활기술 영역	109.72(17.46)	116.28(17.33)	-4.086***
	사회성 영역	110.86(15.74)	115.93(15.20)	-3.144**
	운동기술 영역 <sup>2)</sup>	101.00(16.19)	104.94(9.50)	-1.256
<b>적응행동 조합점수</b>	<b>108.51(13.88)</b>	<b>115.89(16.40)</b>	<b>-5.102***</b>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적응행동의 주영역 및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16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주영역에서는 생활기술 영역이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평균이 109.72 ( $SD = 17.46$ ), 2차년도 평균이 116.28 ( $SD = 17.33$ )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 사회성 영역에서도 유의한 점수차가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이 110.86( $SD = 15.74$ ), 2차년도 평균이 115.93( $SD = 15.20$ )으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주영역 표준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음.

### 3 만 5세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특성별 변화

#### 가. 성별에 따른 종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음.

[표 3]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i>M(SD)</i>		<i>F</i>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토막짜기	남(n=22)	12.41(3.54)	12.0(3.42)	.135	.073	.766
	여(n=18)	12.06(4.40)	12.94(4.32)			
	전체(n=40)	12.25(3.90)	12.45(3.82)			
상식	남(n=22)	12.50(3.17)	10.36(3.77)	5.518*	.041	4.973*
	여(n=18)	11.28(2.54)	11.22(3.00)			
	전체(n=40)	11.95(2.93)	10.75(3.43)			
그림기억	남(n=22)	10.64(3.00)	11.64(3.44)	.520	.003	1.627
	여(n=18)	11.22(3.86)	10.94(3.21)			
	전체(n=40)	10.90(3.38)	11.33(3.32)			
위치찾기	남(n=22)	12.23(2.47)	11.41(2.65)	5.380*	.091	.465
	여(n=18)	12.33(2.99)	10.83(3.59)			
	전체(n=40)	12.28(2.68)	11.15(3.08)			
모양 맞추기	남(n=22)	12.50(2.72)	10.73(2.51)	10.658**	3.555	.000
	여(n=18)	11.22(2.96)	9.44(2.79)			
	전체(n=40)	11.93(2.87)	10.15(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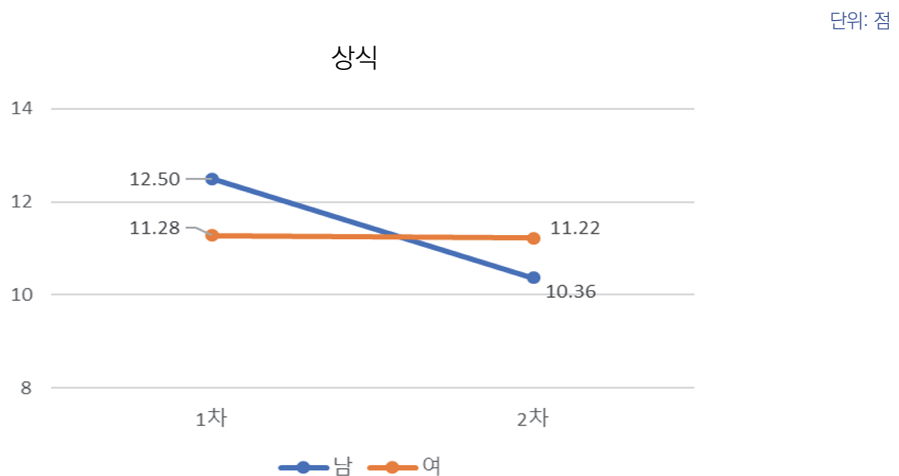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언어이해 지표	남(n=22)	111.59(15.32)	105.23(15.61)	6.914*	.019	.643
	여(n=18)	109.50(13.08)	106.11(14.86)			
	전체(n=40)	110.65(14.21)	105.63(15.09)			
시공간 지표	남(n=22)	113.73(14.64)	107.41(13.33)	2.711	.447	.448
	여(n=18)	108.94(19.17)	106.28(18.53)			
	전체(n=40)	111.58(16.77)	106.90(15.67)			
작업기억 지표	남(n=22)	109.77(13.36)	110.14(15.21)	1.153	.026	1.515
	여(n=18)	111.89(17.25)	106.56(18.31)			
	전체(n=40)	110.73(15.07)	108.53(16.55)			
전체 IQ	남(n=22)	112.23(15.88)	111.50(14.54)	.000	.092	.147
	여(n=18)	110.06(18.79)	110.83(14.47)			
	전체(n=40)	111.25(17.05)	111.20(14.33)			
비언어 지표	남(n=22)	111.50(16.68)	113.23(14.88)	.587	.062	.000
	여(n=18)	110.33(19.38)	112.06(14.57)			
	전체(n=40)	110.98(17.72)	112.70(14.56)			
일반능력 지표	남(n=22)	113.50(16.61)	108.91(15.15)	1.165	.138	.914
	여(n=18)	109.56(19.61)	109.28(15.60)			
	전체(n=40)	111.73(17.89)	109.08(15.16)			

\*  $p < .05$ , \*\*  $p < .01$ .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6.914^*$ )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상식 소검사의 경우에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 = 4.973^*$ )와 차수( $F = 5.518^*$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2] 상식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남아의 경우 1차년도( $M = 12.50$ ,  $SD = 3.17$ )에 비해 2차년도( $M = 10.36$ ,  $SD = 3.77$ )에 상식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공간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의 경우에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10.658^{**}$ )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작업기억지표의 경우에도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위치찾기 소검사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 $F = 5.380^*$ )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2) 적응행동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26.005^{***}$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4]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수용	남(n=33)	16.42(2.21)	16.42(2.60)	.412	.024	.412
	여(n=24)	16.54(2.89)	16.13(2.29)			
	전체(n=57)	16.47(2.49)	16.30(2.46)			
표현	남(n=33)	17.30(2.78)	17.21(3.08)	1.263	.117	1.881
	여(n=24)	16.58(2.45)	17.50(2.34)			
	전체(n=57)	17.00(2.65)	17.33(2.77)			
개인	남(n=33)	16.21(3.55)	17.30(2.74)	5.884*	1.661	.812
	여(n=24)	17.38(2.45)	17.88(1.80)			
	전체(n=57)	16.70(3.16)	17.54(2.39)			
가정	남(n=33)	16.30(2.89)	17.48(3.70)	13.038**	.017	.025
	여(n=24)	16.46(3.11)	17.54(3.30)			
	전체(n=57)	16.37(2.96)	17.51(3.51)			
대인관계	남(n=33)	18.12(2.57)	18.24(2.51)	6.404*	.577	4.497*
	여(n=24)	17.04(2.56)	18.42(2.21)			
	전체(n=57)	17.67(2.60)	18.32(2.37)			
놀이 및 여가	남(n=33)	16.48(3.28)	17.67(3.26)	9.429**	1.304	.019
	여(n=24)	15.54(3.19)	16.83(3.33)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대처기술	전체(n=57)	16.09(3.25)	17.32(3.29)	8.123**	.339	.635
	남(n=33)	16.67(2.99)	17.39(3.11)			
	여(n=24)	16.79(2.62)	18.08(2.84)			
대근육	전체(n=57)	16.72(2.81)	17.68(2.99)	4.172	3.315	.297
	남(n=33)	14.91(1.84)	15.48(1.03)			
	여(n=24)	14.33(2.35)	14.67(1.13)			
소근육	전체(n=57)	14.67(2.07)	15.14(1.14)	10.108**	.807	.048
	남(n=33)	15.58(2.08)	16.48(1.91)			
	여(n=24)	16.00(1.64)	16.79(1.41)			
의사소통 영역	전체(n=57)	15.75(1.90)	16.61(1.71)	.903	.074	.264
	남(n=33)	111.61(12.89)	112.36(17.77)			
	여(n=24)	109.75(13.02)	112.29(14.07)			
생활기술 영역	전체(n=57)	110.82(12.86)	112.33(16.18)	15.241***	.484	.512
	남(n=33)	107.94(18.24)	115.48(19.01)			
	여(n=24)	112.17(16.39)	117.38(15.05)			
사회성 영역	전체(n=57)	109.72(17.46)	116.28(17.33)	10.833**	.255	1.285
	남(n=33)	112.45(16.28)	115.97(15.52)			
	여(n=24)	108.67(15.03)	115.88(15.08)			
적응행동 조합점수	전체(n=57)	110.86(15.74)	115.93(15.20)	26.005***	.011	.335
	남(n=33)	108.70(14.43)	115.36(17.60)			
	여(n=24)	108.25(13.38)	116.63(14.93)			
	전체(n=57)	108.51(13.88)	115.89(16.40)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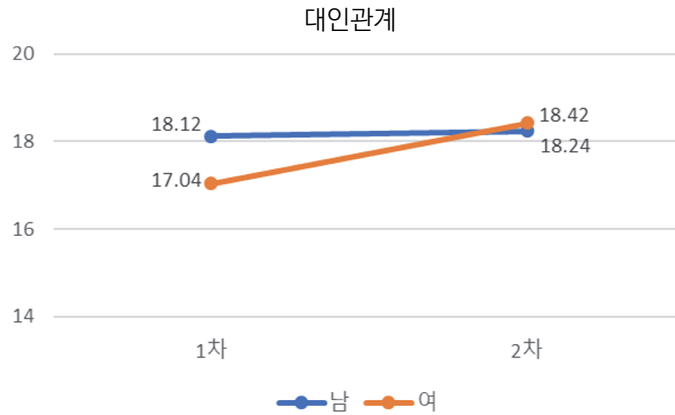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5.241^{***}$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개인( $F = 5.884^*$ )과 가정( $F = 13.038^{**}$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833^{**}$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다만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 = 4.497^*$ )와 차수( $F = 6.404^*$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여아의 대인관계 점수는 2차에서 크게 향상되어 남아와 유사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발달에서 성별에 따라 시기별 성장 궤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 대인관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단위: 점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여아의 경우 1차년도( $M = 17.04$ ,  $SD = 2.56$ )에 비해 2차년도( $M = 18.42$ ,  $SD = 2.21$ )에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놀이 및 여가( $F = 9.429^{***}$ ), 대처기술( $F = 8.123^{***}$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F = 10.108^{**}$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중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토막짜기	맞벌이(n=22)	11.86(4.21)	12.06(4.24)	.001	1.038	.041
	외벌이(n=15)	13.13(3.74)	13.00(3.53)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맞벌이(n=22)	12.55(3.16)	11.27(3.60)	3.924	1.289	.141
	외벌이(n=15)	11.27(2.71)	10.40(3.36)			
	전체(n=37)	12.03(3.01)	10.92(3.48)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맞별이	차수*맞별이
그림기억	맞별이(n=22)	11.55(3.61)	11.77(3.22)	.486	1.231	.079
	외별이(n=15)	10.27(3.22)	10.80(3.71)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맞별이(n=22)	12.45(2.79)	10.73(2.93)	3.574	.319	1.918
	외별이(n=15)	12.20(2.68)	11.93(3.51)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맞별이(n=22)	11.95(3.27)	9.00(2.23)	9.163**	3.041	5.824*
	외별이(n=15)	11.93(2.58)	11.60(2.72)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지표	맞별이(n=22)	113.09(16.08)	107.77(17.10)	5.814*	.708	.044
	외별이(n=15)	108.87(11.53)	104.40(11.55)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시공간 지표	맞별이(n=22)	110.55(18.90)	102.23(15.00)	2.720	2.315	1.472
	외별이(n=15)	114.20(15.19)	112.93(16.31)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맞별이(n=22)	113.32(15.90)	108.68(16.66)	.593	.196	1.264
	외별이(n=15)	108.40(14.31)	109.27(18.32)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맞별이(n=22)	113.23(18.24)	111.64(17.70)	.016	.043	.407
	외별이(n=15)	110.87(16.13)	111.93(8.01)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맞별이(n=22)	113.68(17.46)	112.14(17.20)	.349	.028	1.593
	외별이(n=15)	109.93(18.39)	114.20(10.92)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맞별이(n=22)	114.18(18.30)	109.55(18.20)	1.649	.164	.505
	외별이(n=15)	110.47(17.92)	109.13(8.9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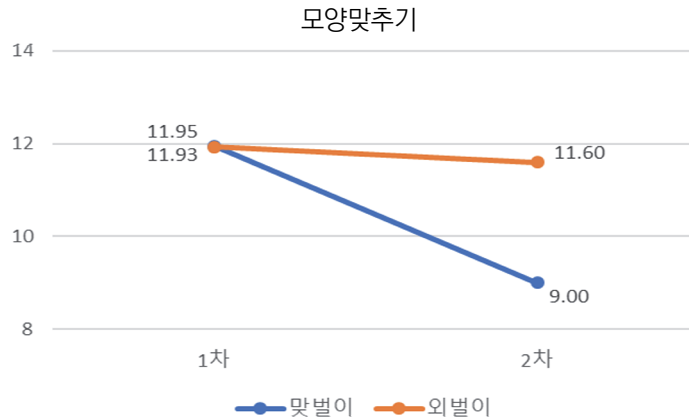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맞별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별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수( $F = 5.814^*$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상식 소검사는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공간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는 차수와 맞별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F = 5.824^*$ )와 차수( $F = 9.163^{**}$ )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맞별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1차 시기에는 맞별이 여부가 모양맞추기 과제 수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2차)에는 맞별이 아동의 수행력이 저하되면서 외별이 아동과 차이가 나타남.

[그림 4] 모양맞추기에서 맞별이 여부와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단위: 점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맞별이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1.95, SD = 3.27$ )에 비해 2차년도( $M = 9.00, SD = 2.23$ )에 모양맞추기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별이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작업기억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과 위치찾기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2) 적응행동 비교

- ▶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맞별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별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9.541^{***}$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6]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별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별이	차수*맞별이
수용	맞별이(n=30)	16.77(2.22)	16.10(2.62)	1.907	.055	.655
	외별이(n=23)	16.65(2.08)	16.48(2.17)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맞별이(n=30)	17.27(2.41)	17.03(2.80)	.545	.001	1.866
	외별이(n=23)	16.78(2.86)	17.57(2.79)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맞별이(n=30)	16.70(3.39)	17.70(2.15)	3.019	.025	2.130
	외별이(n=23)	17.04(2.74)	17.13(2.77)			
	전체(n=53)	16.85(3.10)	17.45(2.43)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가정	맞벌이(n=30)	16.40(3.40)	17.30(3.72)	10.723**	.126	.299
	외벌이(n=23)	16.52(2.37)	17.78(3.34)			
	전체(n=53)	16.45(2.97)	17.51(3.54)			
대인관계	맞벌이(n=30)	17.63(2.62)	18.27(2.00)	3.680	.051	.034
	외벌이(n=23)	17.83(2.50)	18.35(2.67)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맞벌이(n=30)	16.27(3.22)	17.37(3.19)	7.808**	.000	.056
	외벌이(n=23)	16.17(3.08)	17.48(3.25)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맞벌이(n=30)	16.70(2.81)	17.20(3.09)	5.933*	.707	1.179
	외벌이(n=23)	16.91(2.94)	18.22(3.00)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맞벌이(n=30)	15.23(1.19)	15.27(1.17)	3.114	2.714	2.538
	외벌이(n=23)	14.35(2.21)	15.00(1.04)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맞벌이(n=30)	16.07(1.82)	16.70(1.76)	7.907**	1.314	.259
	외벌이(n=23)	15.43(2.04)	16.35(1.75)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맞벌이(n=30)	112.60(12.04)	111.20(16.89)	.064	.001	1.166
	외벌이(n=23)	110.65(11.67)	112.91(14.98)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맞벌이(n=30)	109.80(19.21)	116.17(17.59)	10.935**	.014	.281
	외벌이(n=23)	111.22(14.51)	115.83(18.04)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맞벌이(n=30)	111.13(15.65)	114.83(14.30)	7.512**	.179	.362
	외벌이(n=23)	111.74(15.61)	117.52(16.17)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맞벌이(n=30)	110.00(13.52)	115.63(17.15)	19.541***	.027	.269
	외벌이(n=23)	108.61(12.54)	115.74(15.98)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  $p < .05$ , \*\*  $p < .01$ , \*\*\*  $p < .001$ .

-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935^{**}$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가정( $F = 10.723^{**}$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으며, 개인 하위영역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사회적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7.512^{**}$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놀이 및 여가( $F = 7.808^{**}$ ), 대처기술( $F = 5.933^*$ )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상호작용과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F = 7.907^{**}$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다. 가구소득에 따른 중단비교

### 1) 인지발달 비교

▶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7]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단위: 점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토막짜기	600미만(n=8)	12.75(4.40)	13.50(3.66)	.110	.490	.232
	600이상(n=29)	12.28(3.99)	12.14(4.02)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600미만(n=8)	11.50(2.33)	12.25(1.58)	.504	.200	3.734
	600이상(n=29)	12.17(3.20)	10.55(3.79)			
	전체(n=37)	12.03(3.01)	10.92(3.48)			
그림기억	600미만(n=8)	10.88(3.52)	10.63(3.70)	.043	.221	.350
	600이상(n=29)	11.07(3.51)	11.59(3.36)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600미만(n=8)	12.25(3.28)	10.75(4.20)	3.863	.129	.130
	600이상(n=29)	12.38(2.60)	11.34(2.93)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600미만(n=8)	10.00(2.27)	9.88(1.96)	3.461	2.318	2.804
	600이상(n=29)	12.48(2.95)	10.10(2.93)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지표	600미만(n=8)	110.50(8.65)	112.13(9.06)	1.246	.325	3.307
	600이상(n=29)	111.62(15.72)	104.83(16.04)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소검사/지표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시공간 지표	600미만(n=8)	107.25(18.41)	109.13(14.78)	.661	.059	1.841
	600이상(n=29)	113.34(17.16)	105.86(16.77)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600미만(n=8)	110.50(16.20)	105.38(22.29)	1.315	.228	.344
	600이상(n=29)	111.55(15.29)	109.90(15.73)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600미만(n=8)	110.50(14.06)	111.50(10.53)	.000	.048	.150
	600이상(n=29)	112.76(18.19)	111.83(15.47)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600미만(n=8)	110.13(15.22)	110.38(9.86)	.047	.246	.016
	600이상(n=29)	112.72(18.51)	113.69(16.00)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600미만(n=8)	110.50(16.30)	113.63(12.84)	.129	.047	2.294
	600이상(n=29)	113.28(18.66)	108.21(15.5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 2) 적응행동 비교

- ▶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 $F = 10.882^{**}$ ))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8]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단위: 점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수용	600미만(n=14)	16.57(1.91)	15.50(1.95)	3.684	.978	1.535
	600이상(n=39)	16.77(2.24)	16.54(2.53)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600미만(n=14)	17.07(2.95)	16.71(2.95)	.004	.248	.826
	600이상(n=39)	17.05(2.50)	17.46(2.73)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600미만(n=14)	17.57(3.27)	17.00(2.94)	.444	.053	5.483*
	600이상(n=39)	16.59(3.03)	17.62(2.24)			
	전체(n=53)	16.85(3.10)	17.45(2.43)			
가정	600미만(n=14)	17.64(2.27)	17.57(3.46)	3.808	.800	4.631*
	600이상(n=39)	16.03(3.10)	17.49(3.61)			
	전체(n=53)	16.45(2.97)	17.51(3.54)			

영역	MSD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대인관계	600미만(n=14)	17.71(3.02)	18.00(2.83)	2.101	.092	.363
	600이상(n=39)	17.72(2.39)	18.41(2.10)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600미만(n=14)	16.00(3.76)	16.50(3.06)	4.076*	.813	.953
	600이상(n=39)	16.31(2.92)	17.74(3.20)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600미만(n=14)	17.14(3.21)	17.50(3.23)	2.729	.029	.638
	600이상(n=39)	16.67(2.73)	17.69(3.04)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600미만(n=14)	13.71(2.27)	14.71(1.07)	6.055*	8.122**	4.931*
	600이상(n=39)	15.26(1.33)	15.31(1.10)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600미만(n=14)	15.43(2.21)	15.93(1.90)	4.747*	1.937	.314
	600이상(n=39)	15.92(1.83)	16.77(1.66)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600미만(n=14)	111.36(12.30)	107.21(15.09)	.406	.780	2.444
	600이상(n=39)	111.90(11.79)	113.64(16.11)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600미만(n=14)	116.21(16.33)	114.86(19.12)	3.716	.378	7.309**
	600이상(n=39)	108.33(17.20)	116.44(17.28)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600미만(n=14)	111.64(18.27)	113.36(15.94)	3.623	.138	1.033
	600이상(n=39)	111.31(14.62)	116.95(14.82)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600미만(n=14)	109.57(14.68)	112.71(18.16)	10.882**	.188	1.779
	600이상(n=39)	109.33(12.55)	116.74(15.98)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주: 가구소득 기준 600만원은 응답자의 중위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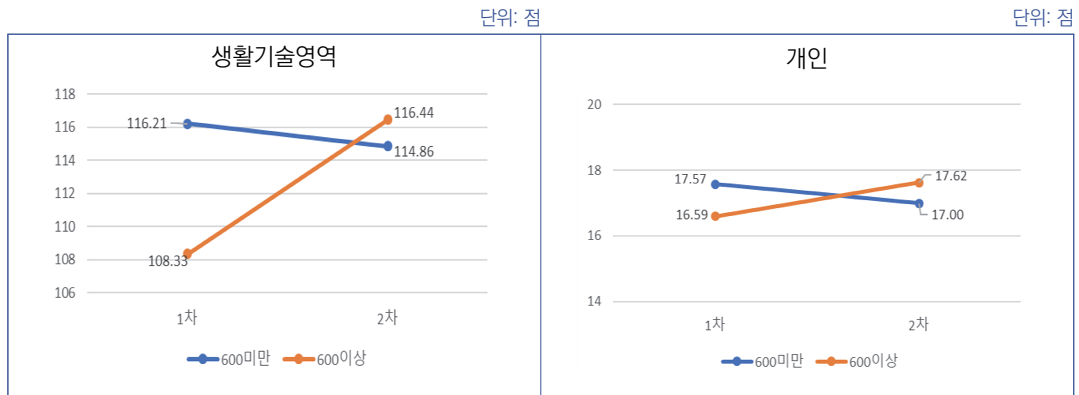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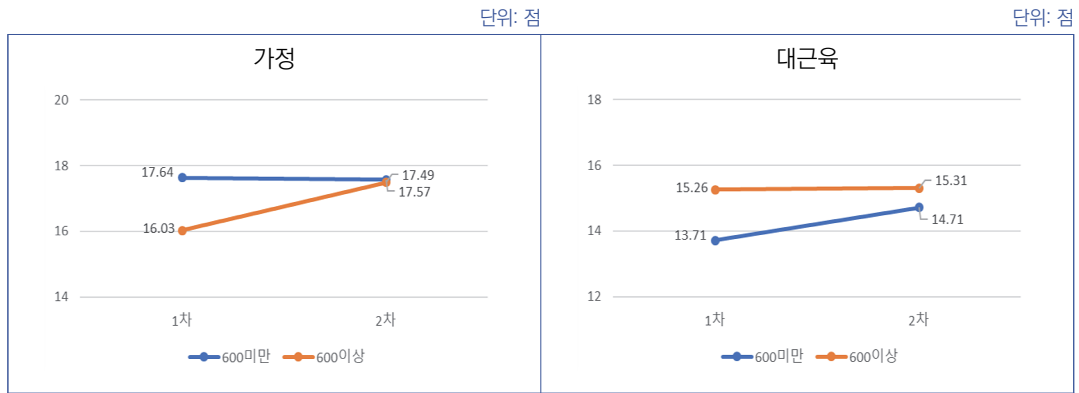
생활기술 영역에서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7.309^{**}$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08.33$ ,  $SD = 17.20$ )에 비해 2차년도( $M = 116.44$ ,  $SD = 17.28$ )에 생활기술 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생활기술 영역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6] 개인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7] 가정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8]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 개인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5.483^*$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6.59, SD = 3.03$ )에 비해 2차년도( $M = 17.62, SD = 2.24$ )에 개인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아동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정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 = 4.631^*$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 $M = 16.03, SD = 3.10$ )에 비해 2차년도( $M = 17.49, SD = 3.61$ )에 가정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유의한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성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인관계와 대처기술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놀이 및 여가( $F=4.076^*$ )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한편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F=4.931^*$ )가 유의하였으며, 차수( $F=6.055^*$ )와 가구소득( $F=8.122^{**}$ )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과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아동 모두 차수에 따른 대근육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근육( $F=4.747^*$ )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4 제언

-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기존 연구들의 다소 상충되는 결과들은 초기 언어발달이 인지 발달과 학습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회복 현상에 안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초등 1학년 아동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 전체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언어이해지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만 3세반 유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의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특히 생활기술이나 개인 발달과 같은 영역은 대근육 발달에 비해 환경적 자극과 교육적 개입의 효과가 빠르게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 집단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추격 효과(catch-up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 2년간의 종단 추적을 통한 단기간의 해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회와 경험의 부족으로 위축된 가정과 기관(학교)에서 또래와의 다양한 형태의 놀이 기회와 또래와의 활동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에서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개인, 가정,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생활기술, 개인, 가정, 대근육 영역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차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활기술과 개인 영역에서는 1차 시점에서 고소득 가구 아동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2차 시점에서는 저소득 가구 아동의 성장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물질적 자원과 양육환경의 질 차이가 초기 아동 발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돌봄 환경,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 지원과 같은 외적 요인이 아동 발달에 점차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음.
-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학령 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이후 학교 준비도 및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혀왔는데, 학령전기 유아가 보이는 또래유능성의 부족, 즉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이후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와 관련된다고 언급함(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Denham & Holt, 1993; Doctoroff, Greer, & Arnold, 2006; 장영은, 성미영, 2015에서 재인용).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Schott et al. (2023)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NSES)가 운동 수행과 억제 조절 성과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고, 특히 낮은 SES 지역 아동이 운동 및 인지 조절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됨. Veldman et al. (2024)도 아동의 기본운동능력(FMS)과 사회경제적 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일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일부 연구들이 운동 자극 기회, 부모의 지원, 교사의 지도 방식이 발달을 매개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음.
- 분석을 통해 관찰된 대근육 발달 격차의 지속은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 물리적 환경(운동 공간, 장비, 안전 인프라), 사회적 자극(또래와의 활동, 부모·교사의 참여), 지역·정책적 지원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대근육 발달 격차가 단기간의 자연적 성장만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 추적을 통해 구조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별로 상이한 궤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생활기술·사회정서적 발달은 교육적 개입 및 환경적 지원을 통해 격차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본 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기 개입이 요구됨.

## 참 고 문 헌

---

- 유한구. (2006). 교육격차의 원인과 대책. *교육평가연구*, 19(1), 1-20.
- 이완정, 김미나. (2018). 빈곤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아동발달연구*, 39(1), 101-122.
- 이정연. (2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교육복지연구*, 23(3), 55-76.
- 장영은, 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생활 변화. *청소년학연구*, 27(6), 5-28.
- Bourdieu, P.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 (Ed.),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pp. 71-112). Tavistock.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Glynn, L. M., Davis, E. P., Luby, J. L., Baram, T. Z., & Sandman, C. A. (2021). A predictable home environment may protect child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eurobiology of Stress*, 14, 100291.
- Schott, N., Mündörfer, A., & Holfelder, B. (2023).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s motor performance and inhibitory control in kindergarten children: Findings from the cross-sectional Kitafit study. *Children*, 10(8), 1332. <https://doi.org/10.3390/children10081332>.
- Veldman, S. L. C., Gubbels, J. S., Singh, A. S., Koedijker, J. M., Chinapaw, M. J. M., & Altenburg, T. M. (2024). Correlates of fundamental motor skills in the early years (0-4 yea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otor Learning and Development*, 12, 1-47. <https://doi.org/10.1123/jmld.2023-0003>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sup>1)</sup>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사 처우 개선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지정 이후 보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전문성 향상, 영유아 환경 개선, 부모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평균 4.8점), 97% 이상이 계속 이용 의향을 보여 제도의 신뢰성이 확인됨. 그러나 지정 및 운영기준 중 일부 항목의 중복과 불필요성이 지적되어 기준 간소화와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함.
-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격차를 완화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 2024)」 중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은 일부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정부는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함(이혜진, 이승희, 오유정, 2016).
  - 2011년 7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보건복지부, 2011) 2012년 9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옴.
- ▶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역대 정부의 공보육 정책 방향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함.
  - 공공형어린이집을 공보육 체계의 일환으로 인정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했으나(보건복지부, 2013), 문재인 정부는 지원 대상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한정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됨(보건복지부, 2018).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초는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
- ▶ 하지만 지방이양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정·운영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본 고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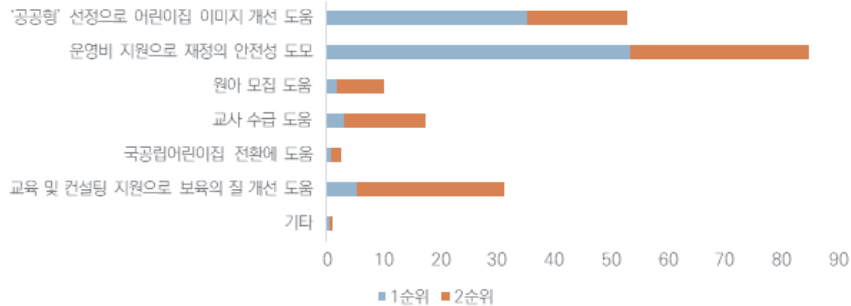
### 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 ▶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37.6%는 2011~2015년, 18.6%는 2016~2018년, 23.2%는 2019~2021년, 20.7%는 2022년 이후에 지정받음.
  - 민간어린이집은 2011~2015년이 49.2%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시작된 초창기에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10~20% 사이임.
- ▶ 공공형어린이집이 최근 재지정 받은 시기는 2022년에 재지정 받은 어린이집이 33.5%로 다수를 차지하고, 2024년이 29.2%, 2023년 24.9%, 2021년 12.4% 순임.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022년에 재지정 받은 비율이 각각 32.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2023년 100%, 법인·단체 등은 2024년이 50.0%로 많음.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참여 이유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의 안전성 도모가 84.9%, '공공형' 선정으로 어린이집 이미지 개선 도움이 52.9%,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보육의 질 개선 도움 31.3%, 교사 수급 도움 17.3%, 원아 모집 도움 10.1% 순임.

[그림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참여 이유: 1+2순위



####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 ▶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4년 기준 10개 지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0개 항목 중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이 적절(적절+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93.5%,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92.7%,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91.7%,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89.6%, 행정처분·처벌 이력 85.4%,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84.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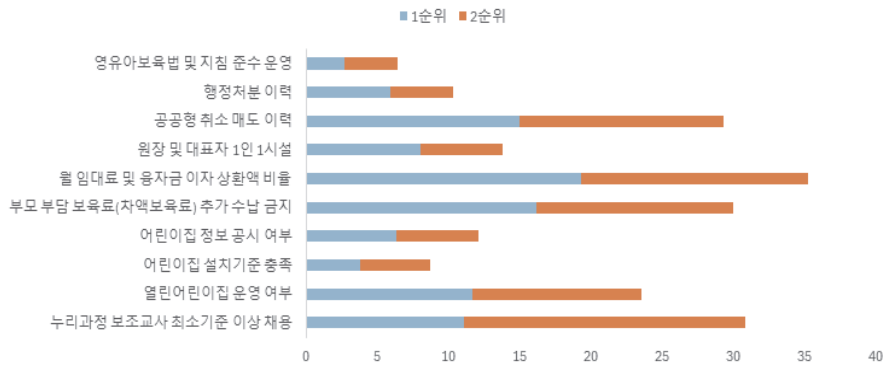
[표 1]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본항목 구성의 적절성: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평균
1.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0.1	0.8	5.5	31.5	62.0	100.0(711)	4.5
2. 행정처분·처벌 이력	2.0	2.0	10.7	32.2	53.2	100.0(711)	4.3
3. 공공형 취소·매도 이력	3.4	4.4	14.8	30.0	47.5	100.0(711)	4.1
4.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1.1	1.5	7.7	24.3	65.3	100.0(711)	4.5
5.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2.1	3.7	14.3	33.5	46.4	100.0(711)	4.2
6.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5.2	5.9	14.9	28.3	45.7	100.0(711)	4.0
7.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0.1	0.3	6.9	33.8	58.9	100.0(711)	4.5
8. 어린이집 설치기준 충족	0.3	0.3	7.7	32.1	59.6	100.0(711)	4.5
9.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1.5	1.4	13.1	31.5	52.5	100.0(711)	4.3
10.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2.8	2.1	16.7	34.3	44.0	100.0(711)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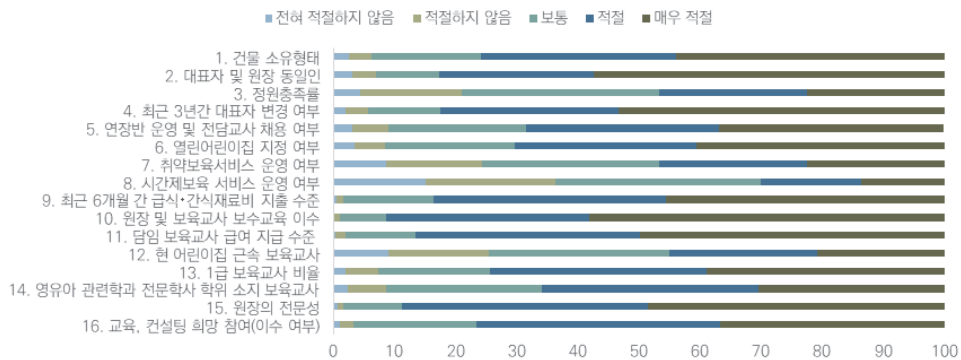
- ▶ 기본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35.2%,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30.8%,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30.0%, 공공형 취소 매도 이력 29.3%,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23.5% 순임.

[그림 2] 기본항목 중 불필요 항목: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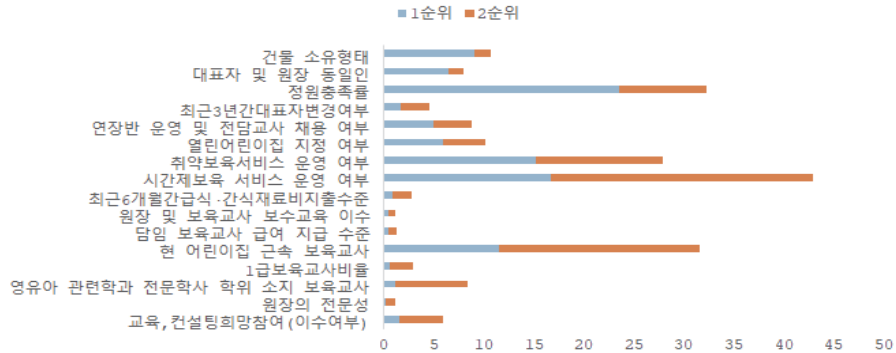
-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16개 항목 중 적절(적절+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가 91.3%, 원장의 전문성이 88.7%,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86.6%,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83.6%,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와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이 각각 82.6% 순임.

[그림 3]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의 적절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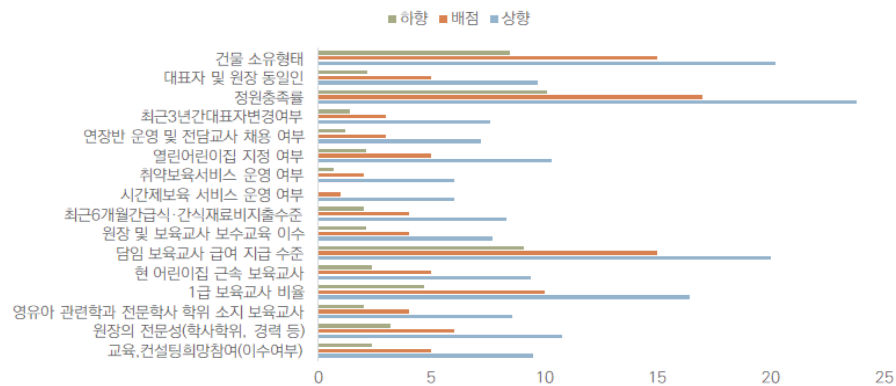
-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42.9%, 정원충족률 32.2%,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31.6%,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27.9%, 건물 소유형태 10.7%,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10.1%,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8.3%,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8.0% 순임.

[그림 4] 기본항목 중 불필요 항목: 1+2순위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16개 항목 중 배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에 대한 배점(4점) 75.2%,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배점(15점) 74.3%,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배점(4점) 72.9%, 교육, 컨설팅 희망 참여(이수 여부) 배점 72.0% 순임.
-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는 31.5%, 원장의 전문성 28.4%,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24.2%, 담임교사 급여 지급 수준 20.8% 순임.
  - 반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항목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가 57.1%로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 53.7%,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47.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44.3% 순임.

[그림 5]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적정 배점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점수로 건물 소유형태(15점)는 8.5점, 정원충족률(17점)은 10.1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수준(15점)은 9.1점으로 현재보다 6~7점 정도 낮은 점수 제시함.

-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건물 소유형태는 20.2점, 정원충족률은 23.8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수준은 20.0점을 제안함.

#### 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 및 적정 지원단가

##### 1) 정부 재정 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 지원 유형을 알아본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 모두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 있고, 조리사 인건비 67.7%,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운영비 56.7%, 유아반운영비 39.7%, 환경개선비 26.6%,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12.4%,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 5.1% 순임.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지원금 규모는 1개소당 평균 421.9 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 2) 보육교사 급여 수준

- ▶ 어린이집 중 88.5%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답하였고, 7.5%는 경력 상관없이 동일 급여를 지급하며, 4.1%는 기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음.
-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과반수 이상인 60.4%는 정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18.0%는 어린이집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17.8%는 지역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지급기준, 3.8%는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보육교사 급여의 1호봉 승급기간과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은 1호봉 승급기간은 평균 2.8년임.
  - 1호봉 승급 시 급여 인상분은 월평균 4.1만원 수준이며, 5만원이 3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만원 23.2%, 1만원 17.0%, 2만원 15.5%, 6만원 이상 11.1% 순임.

[표 2] 1호봉 승급기간 및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단위: %(명), 년, 만원

구분	1호봉 승급기간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계(수)
	1년	2년	3년	4년 이상	평균	1만원	2만원	3~4만원	5만원	6만원 이상	평균	
전체	46.0	22.4	18.8	12.8	2.8	17.0	15.5	23.2	33.2	11.1	4.1	100.0(711)
어린이집 유형												
민간	46.4	22.9	18.7	12.0	2.7	16.5	15.1	26.3	31.8	10.3	3.9	100.0(358)
가정	45.4	22.1	19.0	13.5	3.0	17.2	16.1	20.1	34.8	11.8	4.3	100.0(348)
사회복지법인	-	-	100.0	-	3.0	-	-	-	-	-	5.0	100.0( 1)
법인·단체 등	75.0	-	-	25.0	2.3	50.0	-	25.0	-	25.0	2.8	100.0( 4)
F			7.6(9)		0.7				11.1(12)		0.8	

구분	1호봉 승급기간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계(수)
	1년	2년	3년	4년 이상	평균	1만원	2만원	3~4만원	5만원	6만원 이상	평균	
어린이집 규모												
20인 이하	45.4	21.6	19.4	13.7	3.0	16.9	16.1	20.5	34.4	12.0	4.4	100.0(366)
21~39인	54.9	10.8	21.6	12.7	2.8	26.5	10.8	21.6	24.5	16.7	4.2	100.0(102)
40~79인	42.0	29.8	19.3	8.8	2.4	16.0	17.7	28.2	30.9	7.2	3.5	100.0(181)
80인 이상	46.8	24.2	9.7	19.4	3.2	4.8	12.9	27.4	46.8	8.1	4.4	100.0(62)
F			21.0(9)*		1.6				29.3(12)**		1.7	
지역규모												
대도시	45.6	19.5	20.9	14.0	2.9	15.8	16.3	24.7	33.5	9.8	4.0	100.0(215)
중소도시	45.5	25.3	18.2	11.0	2.8	19.3	15.5	19.3	34.8	11.0	4.2	100.0(336)
농어촌	47.5	20.0	17.5	15.0	2.9	13.8	14.4	29.4	29.4	13.1	4.1	100.0(160)
F			5.0(6)		0.1				9.4(8)		0.2	

\*  $p < .05$ , \*\*  $p < .01$ .

-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72.3%임.
  -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경우 각종 수당 지급 목적이 48.1%, 급여(기본급) 이상 31.5%, 교사 연수 및 연구비 배정 17.3%, 기타 3.1% 순임.

### 3) 유아반 운영비

- ▶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유아반 운영비의 주 사용처를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교재교구비가 41.5%로 가장 많고, 급간식비 27.8%, 보조교사 인건비 24.8%, 행사비 22.0%, 특별활동 강사비 10.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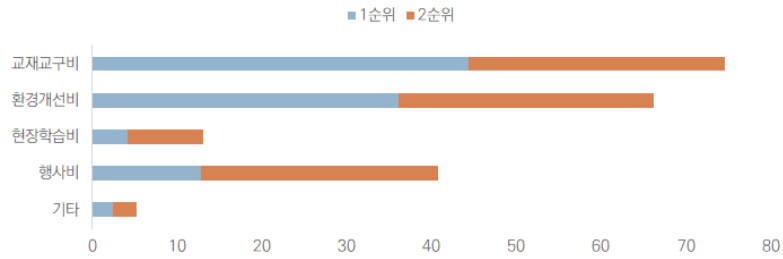
[표 3] 유아반 운영비 주 사용처: 1+2순위

구분	단위: %(명)							계(수)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특별활동 강사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기타	
1순위	14.1	11.5	2.5	1.7	5.2	7.7	57.2	100.0(711)
2순위	10.7	30.0	8.3	8.0	16.8	20.1	6.1	100.0(363)
1+2순위	24.8	41.5	10.8	9.7	22.0	27.8	63.3	(711)

#### 4) 교육환경개선비 주 사용처

- ▶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비의 주 사용처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교재교구비가 74.6%로 다수를 차지하고, 환경개선비 66.2%, 행사비 40.8%, 현장학습비 12.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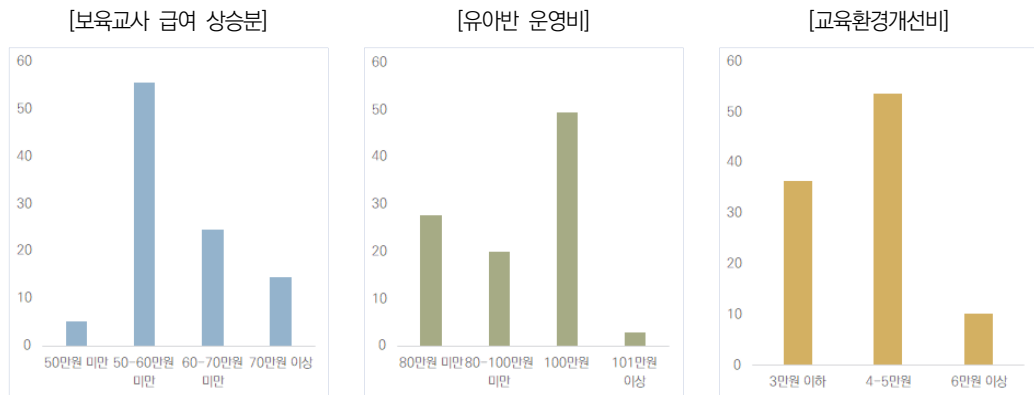
[그림 6] 교육환경개선비 주 사용처: 1+2순위



#### 5) 지원단가의 적절성

-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지원단가가 적절(‘대체로 적절’+‘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 유아반 운영비 지원단가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39.0%,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단가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27.5%임.

[그림 7] 적정 지원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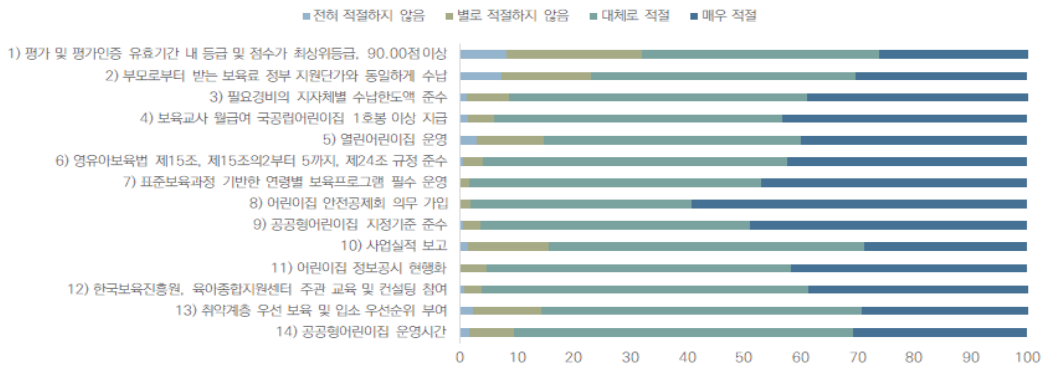
-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의 적정 지원단가로 평균 57.4만원, 유아반 운영비 적정 지원단가로 85.3만원, 교육환경개선비 적정 지원단가로 아동 1인당 월평균 8.1만원을 제안함.

## 라. 운영기준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 1) 운영기준의 적절성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14개 항목 중 표준보육과정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이 98.2%,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교육 및 컨설팅 참여 96.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준수 96.3%,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95.3%, 보육교사 월급여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급 93.9%, 필요경비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91.5%,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90.6% 순임.

[그림 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의 적절성 개요



### 2) 삭제 및 개선 필요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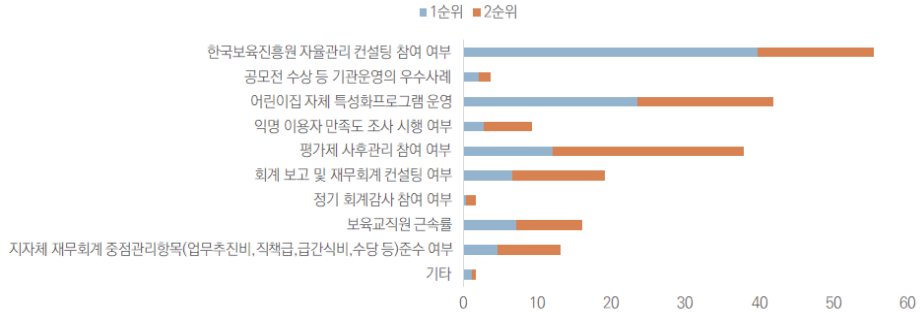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기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이 5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실적 보고 31.2%, 열린어린이집 운영 20.3%, 기타 시도 운영기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19.6%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 항목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실적 보고가 25.1%, 열린어린이집 운영 18.2%, 나머지는 기타 시도 운영기준 순임.

### 3) 운영기준 추가 및 대체 항목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추가할 항목으로, 대부분 추가할 운영기준이 없다고 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임.
- 평가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을 대체할 기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 자율관리 컨설팅 참여 여부가 55.5%, 어린이집

자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41.9%, 평가제 사후관리 참여 여부 37.9%, 회계보고 및 재무회계 컨설팅 여부 19.1%, 보육교직원 근속률 16.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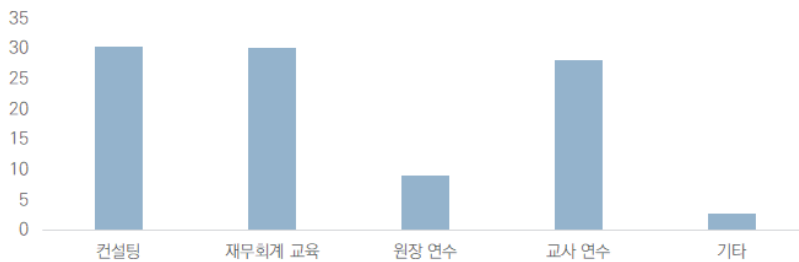
[그림 9] 평가대체 기준: 1+2순위



### 마. 공공형어린이집 질 관리

- ▶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3.7%가 재무회계 운영관리 컨설팅, 69.2%가 품질관리교육(원장/교사 연수), 59.5%는 운영기준 운영관리 컨설팅, 58.1%는 품질관리교육(자율 선택형), 12.4%는 자율학습공동체에 참여함.
- ▶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의 도움 정도로 대부분 도움 되었다고 답하였고, 도움 정도는 평균 3.6~3.7점 사이로 나타남.
  - 특히, 운영기준과 재무회계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한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컨설팅과 재무회계 교육이 각각 30.2%, 30.1%, 교사 연수가 28.0%, 원장 연수 8.9%, 기타 2.8% 순임.

[그림 10] 공공형어린이집 품질 개선 위해 필요한 지원



## 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주요 변화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주요 변화를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영유아 및 부모 등 3개 측면에서 알아봄.

-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 24.1%가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향상, 21.7%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 19.4%는 교사 이직 감소, 17.9%는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 8.6%는 우수 인력 확보, 4.8%는 정원충족률 상승, 1.5%는 대기 아동 수 증가 순임.
- 교사 측면에서 교사 자존감 상승이 25.9%, 교사 전문성 향상 21.9%,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 13.5%, 비금전적 복리후생 2.4% 순임.
- 영유아 및 부모 측면에서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향상이 47.5%, 교사의 질 향상이 19.8%, 부모 부담 경감 16.0%, 시설설비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 15.8% 순임.

## 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질 개선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등 6개 항목에 대한 개선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6개 항목 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보육프로그램의 질,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급간식의 질,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순으로 개선(어느 정도 개선+매우 개선) 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개선 정도는 5점 평균 4.3~4.5점 사이로 나타남.

[표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개선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별로 개선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개선	매우 개선	계(수)	평균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0.1	1.3	11.8	45.9	40.9	100.0(711)	4.3
급·간식의 질	0.3	0.1	10.7	36.7	52.2	100.0(711)	4.4
보육프로그램의 질	-	0.1	7.3	41.2	51.3	100.0(711)	4.4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0.3	0.1	5.6	40.2	53.7	100.0(711)	4.5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	-	7.3	32.8	59.9	100.0(711)	4.5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0.4	0.8	8.6	35.6	54.6	100.0(711)	4.4

### 3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관련 의견

#### 가.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 ▶ 공공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부모에게 자녀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도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31.6%는 잘 알고 있고, 35.3%는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함.
- ▶ 공공형어린이집의 인지 경로는 지인이 42.1%, 인터넷 23.5%, 아이사랑 임신출산육아포털 14.1%, 육아종합지원센터 5.9% 순임.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59.9%가 잘 알고 있고, 37.0%는 대략 알고 있으며, 3.1%는 전혀 모른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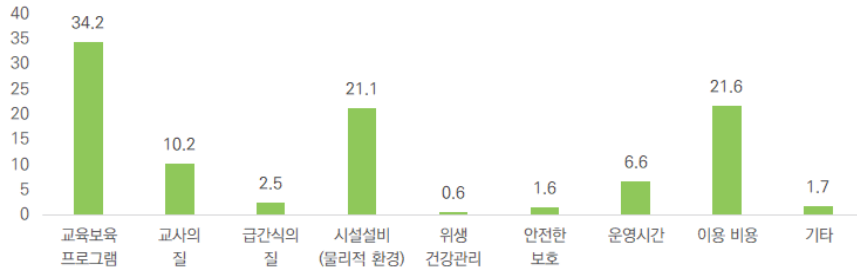
#### 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된 이유로, 자녀의 연령 진급으로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21.1%,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18.8%,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14.1%, 보육 교직원에 대한 불만족 10.7%,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이 9.4%의 순임.
- ▶ 자녀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가 우수해서 52.9%,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47.1%, 공공형어린이집이라서 38.9%, 특별활동이 많아서 14.7%, 급·간식이 우수해서 11.9%, 운영시간 적절 10.8% 순임.
- ▶ 자녀가 현재 다니는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프로그램 등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8개 항목 중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6점으로 가장 낮고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위생 및 건강관리, 안전한 보호, 운영시간, 이용 비용 모두 평균 4.8점으로 높게 나타남.

#### 다. 공공형어린이집 질 격차에 대한 인식

- ▶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차이에 대해 46.2%는 전혀 차이가 없고, 47.5%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6.3%는 매우 차이가 많다고 답함.
  -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34.2%가 교육·보육 프로그램, 21.6%는 이용 비용, 21.1%는 시설설비(물리적 환경), 10.2%는 교사의 질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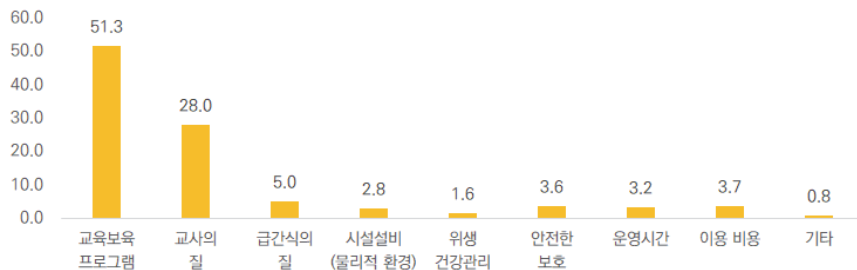
[그림 11]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차이는 영역



-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34.3%는 어느 정도 우수, 63.4%는 매우 우수하다고 답하여 대부분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 51.3%, 교사의 질 28.0%, 급간식의 질 5.0%, 이용 비용 3.7%, 안전한 보호 3.6%의 순임.

[그림 12]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한 영역



## 라.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관련 의견

-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97.3%가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답함.
  - 기관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31.3%는 연령 진급으로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12.5%는 교육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6.3%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에 대한 불만족을 꼽음.
- ▶ 자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선호하는 기관 유형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50.0%, 사립유치원 25.0%, 국공립어린이집 18.8%, 민간어린이집 6.3% 순임.
- ▶ 현재 다니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주변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20.7%는 어느 정도 있음, 77.9%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소개 또는 권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음이 55.8%, 어느 정도 있음이 38.1%, 별로 없음이 5.7%, 전혀 없음이 0.4%의 순으로 나타남.
- ▶ 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음이 82.1%, 어느 정도 있음이 17.1%, 별로 없음 0.6%, 전혀 없음 0.2%로 나타남.
- ▶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라는 응답이 86.1%, 잘 모르겠음이 12.2%, 아니요가 1.7%임.
  -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60.1%, 기관 유형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차이를 없애야 하기 때문 39.2%, 기타가 0.7%임.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계속 보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의향 있음이 86.8%, 잘 모르겠음이 10.9%, 다른 곳으로 이동이 2.3%의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중단 시에도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계속 보내려는 이유로, 교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 49.7%, 현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이 29.0%, 다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이 어린이집보다 못할 것 같아서가 17.3%, 기타가 2.2%, 주변에 옮길 만한 어린이집 없음이 1.7%의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중단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이유로, 정부지원 중단 시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돼서가 74.1%, 부모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 같아서가 18.5%, 정부지원 중단 시 보육교사 이직 우려가 3.7%로 나타남.

## 4 정책 제언

###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 완화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본항목 중 일부 항목은 지정 기본항목과 지자체 자율평가, 운영기준이 중복되므로 지정 기본항목은 재정 지원의 안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 공보육 기관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 현행 10개 항목 중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열린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기준 이상 채용 등 운영 관련 항목은 지자체에서 자율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항목은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평가기준으로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삭제함.
- ▶ **공공형어린이집 지자체 자율평가 항목은 지역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 내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독립반, 통합반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공공형어린이집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권고함.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안내함.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대폭 축소함.**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한 부분으로 교사의 질과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꼽은 바 있어 보육교사 급여 기준과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함.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 항목은 평가제 개편으로 운영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함.

## 2)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단가 현실화

- ▶ **최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정부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단가가 지속 인상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입 수준으로 유아반 운영비를 3세반은 70만원, 4, 5세반은 80만원 수준으로 인상함.
  - 유아반의 경우 3세반과 4, 5세반 반당 아동 수가 상이하나 보육료는 동일하므로 유아반 운영비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만 3세반은 70만원, 4, 5세반은 65만원으로 인상함.

## 5 기대 효과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진입 확대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통해 운영의 효율성 확보
- ▶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

## ▶ 공공형어린이집 재정 지원 확대로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참 고 문 헌

---

-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2).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보도자료.
  - 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2024). 공공형어린이집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해진·이승화·유유정(2016). 공공형어린이집 관리운영 실태분석 및 품질제고 방안. 이슈분석 제20호. 한국보육진흥원.
-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msyang@kicce.re.kr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성과분석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공공형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지출이 일반 민간·가정보다 높아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으며, 정원충족률(85.6%)도 국공립어린이집(82.4%)보다 높음.
- 공공형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 시간제·휴일보육 등의 운영률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높아 공공성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영역은 여전히 낮은 편임.
- 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의 비용 편익은 2.25배, 가정어린이집은 19.56배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높은 편익 효과가 나타남.
- 재지정률이 2021년 37%에서 2023년 22.5%로 급감하고, 재지정 점수 차이도 확대되어 품질 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존재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1 서론<sup>2)</sup>

### 가. 배경 및 문제점

- ▶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4).
-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정부의 공보육 정책 방향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하였음.
  - 박근혜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공보육의 하나로 인정하여 재정지원 등 확대 정책을 펴나갔으나 (보건복지부, 2013), 문재인 정부는 공보육의 범위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여(보건복지부, 2018)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음.
- ▶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모델에서 제외되어 사업지속성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2022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지방 단위에서의 유보통합 이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2011~현재)이 된 현 시점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 내용

-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운영기준, 지방 이양 등에 따른 공공성과 품질 변동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함.

### 다. 연구 방법

- ▶ OECD 사업 평가기준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관련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성과지표’를 개발함.
  - 공공형어린이집이 신규 및 재지정 시 (재)지정기준을 통과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므로 (재)지정 및 운영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성과지표에서 최대한 배제함.

2)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 2024)」 중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은 일부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4개 차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그간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함.

## 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분석

### 가. 사업 성과지표 개발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4개 차원으로 구성함.
  - ‘적절성’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공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공공형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표로 설정함.
    - ‘효과성’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정부(한국보육진흥원 등)로부터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산출함.
    -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출 가능한 지표를 선정해야 하는 한계로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출액, 취약보육 운영률, 정원충족률 등을 성과지표로 선정함.
  - ‘효율성’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연차별 투입 예산 규모와 투입 예산 대비 편익을 산정함.
  - ‘지속가능성’은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이후 재지정 되는 비율과 신규 지정 점수 대비 재지정 점수 차이를 지표로 설정함.

[표 1] 공공형어린이집 성과지표

영역	지표명
적절성 (relevance)	-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민간, 가정) 어린이집 비율(%) -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효과성 (efficiency)	-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출액(원) -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 지출액(원) - 취약보육 운영률(%) - 정원충족률(%)
효율성 (effectiveness)	- 투입 예산 - 투입 예산 대비 편익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재지정률 - 신규 지정 대비 재지정 점수 차이

## 나. 성과 분석

### 1) 적절성

#### 가) 공공형 민간가정 어린이집 비율

- ▶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대상이 초기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외에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음.
- ▶ 2023년 기준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14.4%와 가정어린이집의 12.8%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2023년 기준 21.4%로 공공형어린이집이 이에 미치지 못하나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23년 기준 민간어린이집 66,676명, 가정어린이집 19,739명이며, 전체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15.9%,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는 12.4%를 차지함.

[표 2]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비율

단위: 개소, 명, %

구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공공형	공공형 비율	전체	공공형	공공형 비율
민간	7,754	1,116	14.4	419,739	66,676	15.9
가정	9,018	1,155	12.8	158,885	19,739	12.4

주: 산출공식: 공공형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00

자료: 교육부(2024). 2023년 3월~2024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4년 2월 말 기준).

### 2) 효과성

#### 가) 아동 1인당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출액

- ▶ 공공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육교사 급여 수준이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교사 급여 자료는 정부에서 누적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수집 및 산출이 불가하므로 아동 1인당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하여 효과성 평가에 활용함.

- 아동 1인당 급간식비는 공공형어린이집이 2024년 2월 말 기준 월평균 72,780.5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79,907.1원보다 낮지만,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높음.
-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는 공공형어린이집이 2024년 2월 말 기준 월평균 10,065.7원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18,599.8원보다는 낮지만, 일반 민간어린이집 6,981.8원, 일반 가정어린이집 8,094.2원보다 2~3배 정도 많음.

[표 3] 아동 1인당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월평균 지출액

단위: 원(개소)

영역	아동1인당 급·간식비			아동1인당 교재교구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국공립	79,907.1	15,655.5	(4,057)	18,599.8	12,429.8	(4,057)
일반 민간	62,987.4	13,308.9	(6,638)	6,981.8	7,799.0	(6,638)
일반 가정	72,254.5	18,277.2	(7,863)	8,094.2	6,927.6	(7,863)
공공형어린이집	72,780.5	13,680.0	(2,281)	10,065.7	8,483.5	(2,281)
<i>F</i>	1020.2***			1719.2***		

자료: 교육부(2024). 2023년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

\*\*\*  $p < .001$ .

### 나) 취약보육 운영률

- ▶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보육기관으로서 취약보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은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운영률이 낮지만, 장애아통합과 기타 연장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은 운영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 취약보육 운영률

단위: %

영역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기타 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	시간제보육
국공립	0.9	1.1	19.3	43.8	2.5	1.0	3.3
일반 민간	2.3	0.3	1.7	14.9	0.2	0.3	2.2
일반 가정	0.4	0.0	0.1	16.3	0.2	0.3	1.5
공공형어린이집	0.0	0.0	2.7	30.9	1.1	0.3	8.2
전체	1.1	0.3	4.6	22.8	0.7	0.5	2.8

자료: 교육부(2024). 2023년 3월~2024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4년 2월 말 기준).

### 다) 정원충족률

- ▶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23년 12월 말 기준 85.6%로 국공립어린이집 82.4%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 민간(71.3%)과 가정(79.4%)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공공형어린이집이 5~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정원충족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5] 정원충족률

영역	국공립	일반 민간	일반 가정	공공형어린이집	전체
평균	82.4	71.3	79.4	85.6	78.1
표준편차	17.0	22.1	22.2	16.2	21.3

자료: 교육부(2024). 2023년 3월~2024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4년 2월 말 기준)

### 3) 효율성

-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투입 대비 편익 비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함.

#### 가) 투입 예산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은 2021년 90,059백만원에서 2022년 122,824백만원으로 36.4%, 2023년에는 125,6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함.

[표 6]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

영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산)
보육예산	5,970,552	5,893,110	6,678,017	7,658,149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	60,624	659	664	-
지방자치단체	29,435	122,165	124,979	(미수집)
총예산	90,059	122,824	125,643	
전년 대비 증감률		(36.4)	(2.3)	

주: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예산 비율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예산/보육예산 \* 100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p.325.  
 보건복지부(2022). 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 p.317.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 부록. p.331.  
 보건복지부(2024). 2024 보육사업안내 부록. p.331.

## 나) 편익분석

- ▶ 공공형어린이집 인증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함.
- ▶ 비용-편익 분석은 기본적으로 총편익과 총비용 간 비율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따르며,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여러 비용-편익 분석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음.

$$\text{비용-편익 비율} = \frac{\text{편익의 현재가치}(PV)}{\text{비용의 현재가치}(PV)}$$

- ▶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세부 비용, 편익 항목의 선정은 서문희 외(2014)와 양미선 외(2016)의 연구에서 적용한 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용함.
  - 서문희 외(2014: 160)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 시설 간 지출금액의 차이가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논의를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적 전제로 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기본적으로 따름.
  - 공공형 어린이집과 공공형이 아닌 어린이집 간 주요 항목별 지출액의 차이가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가 서비스 개선 효과, 즉 무형의 편익(benefit)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상정함.
  -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세부 편익 항목으로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를 고려함.
- ▶ 공공형어린이집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교육부(2024)에서 제공한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를 가공하여 활용함.
  - 각 연도의 회계연월은 2022년 3월~2023년 2월이므로, 이중 회계연도의 연앙(mid-year)인 9월 자료만을 추출하여 가공하는 방식을 취함.
  - 양미선 외(2016)의 논의를 준용하여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이상 공공형 지정/미지정)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는 아동 1인당 세출 예산 및 주요 세부 세출 항목 평균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총 편익은 각 범주별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민간, 가정)의 아동 1인당 세출 항목 평균의 차이에 해당 범주의 이용 아동 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됨.

$$\text{총 편익} = \text{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민간, 가정)의 아동 1인당 세출 항목 평균의 차이} \times \text{해당 범주 이용 아동 수}$$

▶ 각 어린이집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세출 항목 평균의 차이를 살펴봄.

- 지역 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세출 항목 평균의 차이를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민간, 가정)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표 7]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대도시\_민간)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대도시_민간	389,677.4	61,103.38	8,745.851	832,255.4
일반어린이집_대도시_민간	40,8981.7	57,367.41	7,647.10	834,866.3
차이	-19,304.31	3,735.971	1,098.749	-2,610.97
t-stat.	-2.0808	3.3795	1.0538	-0.1950
P-val.	0.0189	0.0004	0.1461	0.4227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8]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중소도시\_민간)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중소도시_민간	386,147.9	65,905.43	11,943.3	839,333.3
일반어린이집_중소도시_민간	389,178.8	59,732.62	8,006.887	838,506.3
차이	-3,030.918	6,172.809	3,936.413	827.0697
t-stat.	0.3938	5.8247	4.5747	0.0746
P-val.	0.3469	0.0000	0.0000	0.4703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9]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농어촌\_민간)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농어촌_민간	389,196.8	63,446.51	9,591.261	839,402.4
일반어린이집_농어촌_민간	367,314	59,557.29	7,512.68	813,576.4
차이	21,882.74	3,889.214	2,078.581	25,825.98
t-stat.	2.1108	2.8251	2.0041	1.6068
P-val.	0.0175	0.0024	0.0227	0.0542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 ~ 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10]**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대도시\_가정)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대도시_가정	556713.9	68039.9	13510.1	1181346
일반어린이집_대도시_가정	484786.9	62546.78	9628.312	1045249
차이	71926.97	5493.122	3881.791	136.097.
t-stat.	10.0389	3.8406	2.3606	11.2706
P-val.	0.0000	0.0000	0.0092	0.0000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1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중소도시\_가정)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중소도시_가정	548358.9	72811.14	13602.54	1200576
일반어린이집_중소도시_가정	504741.8	63989.67	7823.198	1086039
차이	43617.13	8821.471	5779.339	114537.4
t-stat.	6.4561	11.6987	7.3890	10.4155
P-val.	0.0000	0.0000	0.0000	0.0000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12]**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농어촌\_가정)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공공형어린이집_농어촌_가정	567195.8	72706.09	5752.471	1211070
일반어린이집_농어촌_가정	507155.8	64109.37	4659.029	1099300
차이	60039.97	8596.724	1093.443	111769.6
t-stat.	4.9425	5.8135	1.2126	3.0717
P-val.	0.0000	0.0000	0.1128	0.0011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 전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범주에서의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민간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기본급과, 대도시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 아동 1인당 세출 예산 평균의 경우 일반어린이집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세출 항목의 차이에 따라 편익 항목이 다양한 편차(variation)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표 1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 민간, 가정, 지역 유형별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기본급	급식간식재료비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세출예산
전체	민간	599.74	4,469.004	2,399.2	4,884.465
	가정	53,206.21	7,726.774	4,383.001	117,377.9
대도시	민간	-19304.31	3735.971	1098.749	-2610.97
	가정	71926.97	5493.122	3881.791	136097
중소도시	민간	-3030.918	6172.809	3936.413	827.0697
	가정	43617.13	8821.471	5779.339	114537.4
농어촌	민간	21882.74	3889.214	2078.581	25825.98
	가정	60039.97	8596.724	1093.443	111769.6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 교육부(2022)의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 자료를 가공하여 위에 제시한 유형별 이용 아동 수를 추산함.

- 이는 각각의 범주(공공형어린이집 민간/가정,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평균 현원을 산출하고, 이에 각 범주별 공공형어린이집 개소 수를 곱하여 산출함.
- 결국 각 범주별 총 편익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여부에 따른 아동 1인당 평균 세부 세출 항목의 차이에 공공형어린이집 민간, 가정, 지역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추산치를 곱한 값으로 도출됨.

[표 14] 공공형어린이집 민간, 가정, 지역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추산

단위: 개소, 명

영역		개소 수(A)	평균 현원(B)	이용 아동 수 추산 (A×B)
전체	민간	696	67.53017	47,001
	가정	933	18.16077	16,944
대도시	민간	222	67.46847	14,978
	가정	264	18.35606	4,846
중소도시	민간	265	66.01132	17,493
	가정	494	18.02429	8,904
농어촌	민간	209	69.52153	14,530
	가정	175	18.25143	3,194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표 15] 공공형어린이집 민간, 가정, 지역 유형별 총 편익

단위: 원

영역		보육교직원	급식간식	교재교구	월 총 편익	연 총 편익
		기본급	재료비	구입비		
전체	민간	28,188,380	210,047,657	112,764,799	229,574,739	2,754,896,874
	가정	901,526,022	130,922,459	74,265,569	1,988,851,138	23,866,213,651
대도시	민간	-289,139,955	55,957,374	16,457,063	-39,107,109	-469,285,304
	가정	348,558,097	26,619,669	18,811,159	659,526,062	7,914,312,744
중소도시	민간	-53,019,849	107,980,948	68,859,673	14,467,930	173,615,163
	가정	388,366,926	78,546,378	51,459,234	1,019,841,010	12,238,092,115
농어촌	민간	317,956,212	56,510,279	30,201,782	375,251,489	4,503,017,873
	가정	191,767,664	27,457,936	3,492,457	356,992,102	4,283,905,229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 종합적으로, 앞서 도출한 공공형어린이집\_민간, 공공형어린이집\_가정의 개소당 총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12.2억원이고, 총 편익은 27.5억원, 238.7억원으로 도출되었으므로, 범주별 비용-편익 비율은 각각 2.25배, 19.56배로 산출됨.

- 이는 공공형어린이집\_가정과 가정 일반어린이집 간 세출 예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편익이 크게 도출된 데 기인함.
- 다만, 대도시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의 경우 연 총 편익이 부(-)의 값으로 도출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편익으로 고려하고 있는 세부 세출예산 항목의 지역 간 공공형-비공공형 간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기인함.
- 아울러, 총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공형 지원 세부 예산 금액 중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가정(1%)을 적용한 것과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민간과 가정 유형별로 총비용이 상이할 개연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한계점에 기인함.
- 해당 시기에서의 공공형어린이집 편익은 민간 유형보다는 가정 유형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도출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이러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다분함.

[표 16]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유형별 총비용, 편익비율

단위: 억 원, 배

영역		총비용	총편익	편익비
전체	민간	12.2	27.5	2.25
	가정		238.7	19.56

주: 서울은 서울형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교육부(2024). 2022년 3월~2023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2022년 9월 말 기준)

#### 4) 지속가능성

##### 가) 재지정률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이후 재지정 비율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임.

-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지정률은 2021년에는 37.0%에서 2022년 41.9%로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22.5%로 크게 줄어듦.
-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규모가 다소 줄었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난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음.

[표 17]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률

영역	단위: 개소(%)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수	2,286	2,325	2,293
신규 지정 어린이집 수	164	198	262
재지정 어린이집 수	786	892	456
재지정률(%)	(37.0)	(41.9)	(22.5)

주: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어린이집은 각 년도 말 기준임.

재지정률: 재지정어린이집 수/(전체 공공형어린이집-신규 지정 어린이집 수)\*10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4). 내부자료.

##### 나) 재지정 통과 점수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당시 점수가 재지정 시 유지되는지 알아본 결과,

- 2021년 신규 지정 심사 통과점수와 재지정 심사 통과 점수 간의 점수 차이가 2.03점이었으나 2022년에는 2.61점, 2023년에는 6.1점으로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신규 지정 당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표 18]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률

영역	단위: 개소(%)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지정 심사 통과 점수(a)	89.45	91.83	90.16
재지정 심사 통과 점수(b)	87.42	89.22	84.06
신규-재지정 점수 차이 (c)	(2.03)	(2.61)	(6.1)

자료: 행정지원시스템 지자체( 시도) 입력 점수(평가관리통합시스템과 연동)

한국보육진흥원(2024). 내부자료.

- 해석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재지정 심사 기준 중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나 지역 특성상 취약보육

이용 아동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으며, 시간제보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어 재지정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음.

#### 다) 지정 취소율

#####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및 재지정 이후 취소 또는 포기 등의 비율을 산출함.

- 2020년에는 전체 공공형어린이집 중 8.1%가 지정 취소 또는 포기하였고, 2021년은 8.9%, 2022년에는 8.0%로 최근 3년간 8% 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19] 공공형어린이집 취소 또는 포기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공공형어린이집 수			취소 및 포기			취소 및 포기 비율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전체	2,311	2,330	2,286	188	208	183	8.1	8.9	8.0
부산	181	188	177	21	29	16	11.6	15.4	9.0
대구	106	102	99	11	13	10	10.4	12.7	10.1
인천	137	139	133	13	14	11	9.5	10.1	8.3
광주	89	91	94	6	3	9	6.7	3.3	9.6
대전	142	132	127	13	16	12	9.2	12.1	9.4
울산	101	97	98	7	9	7	6.9	9.3	7.1
세종	16	16	16	4	6	5	25.0	37.5	31.3
경기	640	645	623	38	52	35	5.9	8.1	5.6
강원	107	106	104	7	11	10	6.5	10.4	9.6
충북	90	94	95	9	10	4	10.0	10.6	4.2
충남	86	88	83	4	9	18	4.7	10.2	21.7
전북	102	103	102	18	9	12	17.6	8.7	11.8
전남	84	89	94	9	5	7	10.7	5.6	7.4
경북	147	142	149	17	6	8	11.6	4.2	5.4
경남	165	174	168	9	13	16	5.5	7.5	9.5
제주	118	124	124	2	3	3	1.7	2.4	2.4

주: 취소 또는 포기 비율 = 취소 및 포기 어린이집 수/공공형어린이집 수 \* 100

자료: 2023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정책조사 자료 및 각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4). 내부자료.

### 3 정책 제언

- ▶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 단순 점수기준이 아닌 운영 과정의 질적 개선 활동을 반영하는 등의 재지정 관리체계 개선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또는 포기 어린이집 대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확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기회 부여
  - 지자체별 지정 시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 기준과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 ▶ **재정 효율성 제고**
  - 단순 운영비 지원에서 벗어나 정원충족률, 취약보육 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기반 차등 지원 제도 도입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편익 차이가 크므로 지역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 ▶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및 개선 위해 지난 수년간 동결되어 있는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
  -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가 낮은 수준이므로 예산 차등 지원을 통해 격차 완화
- ▶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의 취약보육 운영률이 낮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일정 비율을 필수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4 기대 효과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확대를 통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격차 완화
- ▶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기반의 재정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중간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참 고 문 헌

---

- 교육부(2024). 2023년 3월~2024년 2월 어린이집 일람 현황, 세입세출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2022). 2022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2024). 2024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4). 202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2024).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이규림·정지운·김정민(2016). 공보육·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육진흥원(2024). 내부자료.
-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msyang@kicce.re.kr



# 영유아기 인간상 및 미래 역량의 탐색: 부모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sup>1)</sup>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 SUMMARY

- 국제적으로 핵심역량 논의는 OECD DeSeCo를 통해 3범주로 정립되었고, 후속 프로젝트인 Learning Compass 2030은 학습자 주도성(agency)과 지식·기능·가치·태도의 통합을 제시함. 본 글에서는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문가와 부모 의견에 근거해 분석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부모들이 응답한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할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33.1%)'과 '더불어 사는 사람 (26.1%)'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영유아기 핵심역량 범주로는 '자기관리/자율행동(43.0%)'과 '대인관계/상호작용 (41.8%)'이 높았으며,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자기주도성·배려/포용·문제해결·의사소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CVR=0.70)과 핵심역량(CVR=0.70), '누리과정' 인간상(CVR=0.50)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함. 한편 영유아기 필수 역량 중에서는 '대·소근육 발달, 자조기술, 규칙 적응, 문제해결, 정서·사회적 상호작용(자기·타인)' 6개 항목이 합의에 도달함.
- 부모와 전문가 모두 인지적인 성취보다 비인지적 측면인 사회정서적 역량(자기조절, 배려·공감, 협력, 자기주도성)을 영유아기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윤리성·공감'과 같은 가치 기반 인간상은 개념 정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인성과 감성, 인간다움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기 핵심역량은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발달적 토대로 초등 이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영유아 핵심역량을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보육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

1) 본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연구로 수행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최은영 외, 2024)'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 1 배경

- ▶ 국제 수준에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도입에 대한 관심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에 마무리된 OECD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함.

  -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의 세 가지 범주로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의 도구를 사용하는 역량’,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역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을 제시함(OECD, 2005: 5).
  - 21세기에 들어서 OECD에서는 OECD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핵심역량을 포함하는 학습나침반 2030 (the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함. 학습나침반 2030은 “학습자들이 잠재성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지구의 웰빙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규정함.
- ▶ 2022년 개정·고시된 초·중등의 새 교육과정 개발도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혁신하고자 추진됨(교육부 보도자료, 2021. 11. 24).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교육부, 2021).
- ▶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2019년에 개정되었는데, 2012년에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누리과정 제정 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해 상충으로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지 못함(문복진, 2019).

  - 유아교육 혁신에 근거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있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내지는 실천을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김영옥, 2019).
-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교육의 목적을,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학교급별 중점사항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이라는 학교급별 중점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해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영유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추구하는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형태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외, 2023).

▶ 영유아기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선상에서 출발한 것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핵심역량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만 발현되거나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 사회의 인간상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함(최은영 외, 2023).

- 이에 본 글에서는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 이를 기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과 영유아기 역량의 연계,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부모 의견

▶ 초등학교 저학년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을 조사함.

- 건강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 사는 사람(26.1%), 창의적인 사람(17.5%), 자주적인 사람(15.1%), 감성이 풍부한 사람(8.1%) 순으로 나타남.
- 부모 모두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강조했으나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창의적인 사람,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주적인 사람을 강조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상태가 자영업인 경우 더불어 사는 사람, 비정규직과 비취업인 경우 자주적인 사람을 강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인간상

단위: %(명)

구분	인간상					계(수)	$\chi^2(df)$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전체	33.1	26.1	17.5	15.1	8.1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35.8	21.6	17.2	16.0	9.4	100.0 (500)	15.555* (8)
	유아반(만3~5세반)	29.6	28.2	19.0	14.0	9.2	100.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4.0	28.4	16.4	15.4	5.8	100.0 (500)	
자녀수	1명	33.6	23.8	16.6	16.9	9.0	100.0 (797)	13.536 (8)
	2명	33.3	27.7	18.9	12.6	7.5	100.0 (610)	
	3명 이상	28.0	34.4	17.2	16.1	4.3	100.0 (93)	

구분	인간상					계(수)	$\chi^2(df)$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지주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응답자	아버지	31.6	24.8	20.4	13.9	9.3	100.0 (805)	14.995**
성별	어머니	35.0	27.5	14.2	16.5	6.8	100.0 (695)	(4)
취업 상태	정규직	33.1	25.5	18.3	14.2	8.9	100.0 (1169)	22.965*
	비정규직	32.9	22.4	16.5	21.2	7.1	100.0 (85)	
	자영업	34.4	35.6	16.7	7.8	5.6	100.0 (90)	
	비취업	32.7	26.9	12.8	23.1	4.5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33.7	26.1	17.3	14.6	8.3	100.0 (998)	0.948
	외벌이	32.1	26.1	17.9	16.1	7.8	100.0 (502)	(4)

\*  $p < .05$ , \*\*  $p < .01$

▶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 외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함.

- 그 결과를 Top20으로 살펴보면, 예의 바른 사람(6.3%), 정직한 사람(5.4%), 행복한 사람(4.7%), 바른 사람(4.7%), 자기 주도적인 사람(3.6%), 착한 사람(3.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2]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1순위, Top20/Top30)

단위: %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1순위, Top20)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종합, Top30)	
인간상	비율	인간상	비율
예의 바른	6.3	예의바른	8.7
정직한	5.4	정직한	8.2
행복한	4.7	행복한	7.1
바른	4.7	바른	6.8
자기주도적인	3.6	자기주도적인	6.3
착한	3.4	공동체 정신이 있는	6.3
공동체 정신이 있는	2.9	착한	5.6
자존감이 높은	2.0	긍정적인	4.1
지혜로운	1.9	성실한	3.9
따뜻한	1.7	지혜로운	3.4
긍정적인	1.6	자존감이 높은	3.4
성실한	1.6	사랑할 줄 아는	2.8
인간적인	1.6	도덕적인	2.7
인성을 갖춘	1.5	사회성이 있는	2.6
도덕적인	1.4	인성을 갖춘	2.5
공감능력이 있는	1.3	따뜻한	2.3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1순위, Top20)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 (종합, Top30)	
인간상	비율	인간상	비율
사랑할 줄 아는	1.3	인간적인	2.3
사회성이 있는	1.3	공감능력이 있는	2.3
자유로운	1.2	즐거움	2.1
관대한	1.1	관대한	2.1
		사려 깊은	2.1
		베풀 줄 아는	1.8
		똑똑한	1.7
		친절한	1.6
		자유로운	1.6
		책임감이 있는	1.6
		도움을 주는	1.5
		이타적인	1.3
		존중할 줄 아는	1.3
		정의로운	1.3

[그림 1]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1순위, 10회 미만 제외)



▶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정직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뢰(17.9%), 자유(13.9%) 공존(10.2%), 부(8.2%) 순으로 나타남.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가치는 권력(1.3%)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2.1%), 명예(2.4%) 순으로 나타남.

-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정직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뢰(38.2%), 자유(26.7%), 공존(21.3%), 부(17.9%) 순으로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보임.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가치 또한 권력(3.3%)이었고, 그 다음은 권위(3.9%), 명예(5.6%) 순으로 나타나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보임.

[표 3]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1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계(수)
	정직	신뢰	자유	공존	부	평화	평등	사회 공헌	명예	권위	권력	기타	
1순위	25.6	17.9	13.9	10.2	8.2	7.7	6.4	3.5	2.4	2.1	1.3	0.8	100.0 (1500)
1+2순위	42.7	38.2	26.7	21.3	17.9	17.8	15.3	6.3	5.6	3.9	3.3	0.9	100.0 (1500)

▶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43.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41.8%)으로 나타남.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은 15.2%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음.
- 응답자가 아버지인 경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어머니인 경우는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 4]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역량 범주

단위: %(명)

구분	핵심역량 범주			계(수)	$\chi^2(df)$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전체	43.0	41.8	15.2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유아반(만3~5세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0.8 40.2 48.0	42.6 43.4 39.4	16.6 16.4 12.6	100.0 (500) 100.0 (500) 100.0 (500)	8.795 (4)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4.0 42.1 39.8	41.7 41.6 44.1	14.3 16.2 16.1	100.0 (797) 100.0 (610) 100.0 (93)	1.555 (4)
응답자 성별	아버지 어머니	40.6 45.8	42.4 41.2	17.0 13.1	100.0 (805) 100.0 (695)	6.198* (2)
취업 상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비취업	42.4 41.2 46.7 46.2	41.7 41.2 37.8 44.9	15.8 17.6 15.6 9.0	100.0 (1169) 100.0 (85) 100.0 (90) 100.0 (156)	6.127 (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외벌이	43.3 42.4	40.2 45.0	16.5 12.5	100.0 (998) 100.0 (502)	5.415 (2)

\*  $p < .05$ .

- ▶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는 자기주도성이 20.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배려와 포용성(16.0%), 문제해결능력(13.9%) 의사소통능력(12.9%), 창의성(9.7%) 순이었음.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능력은 과학적 소양(2.7%)이었고, 예술적 자질(3.2%), 비판적 사고력(4.3%), 수리능력(4.6%) 순으로 나타남.
  -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자기주도성이 33.5%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배려와 포용성(33.4%), 문제해결능력(31.1%) 의사소통능력(25.9%), 창의성(18.7%) 순으로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보임.
  -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능력은 과학적 소양(6.6%)이었고, 예술적 자질(6.7%), 비판적 사고력(7.9%), 수리능력(9.1%) 순으로 낮게 나타나 1순위와 같은 경향을 나타냄.

[표 5]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1순위)

단위: %(명)

구분	기대하는 능력											계(수)
	자기 주도성	배려와 포용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창의성	언어 능력	협업 능력	수리 능력	비판적 사고력	예술적 자질	과학적 소양	
1순위	20.0	16.0	13.9	12.9	9.7	6.6	6.1	4.6	4.3	3.2	2.7	100.0 (1500)
1+2순위	33.5	33.4	31.1	25.9	18.7	14.3	12.7	9.1	7.9	6.7	6.6	100.0 (1500)

- ▶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기 관리역량이 28.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협력적 소통역량(22.3%), 창의적 사고역량(21.7%), 공동체 역량(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가장 낮은 역량은 심미적 감성 역량으로 5.4%가 응답함.
  -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응답자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 자기관리역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표 6] 2022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명시된 핵심역량 중 자녀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계(수)	$\chi^2(df)$
	자기 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전체	28.0	22.3	21.7	14.2	8.4	5.4	100.0 (1500)		
자녀	영아반(0~만2세반)	26.4	20.8	21.2	14.0	9.4	100.0 (500)	25.096** (10)	
소속반	유아반(만3~5세반)	24.2	24.0	23.8	14.4	4.8	100.0 (500)		
(학급)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33.4	22.2	20.0	14.2	3.2	100.0 (500)		

구분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계(수)	$\chi^2(df)$
		자기 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녀수	1명	29.7	20.6	20.8	13.8	8.8	6.3	100.0 (797)	9.841 (10)
	2명	25.4	24.8	22.6	14.4	8.0	4.8	100.0 (610)	
	3명 이상	30.1	21.5	22.6	16.1	7.5	2.2	100.0 (93)	
응답자	아버지	24.6	22.7	23.5	14.8	9.1	5.3	100.0 (805)	11.295*
성별	어머니	31.9	21.9	19.6	13.5	7.6	5.5	100.0 (695)	
취업 상태	정규직	27.5	22.2	22.3	14.0	8.2	5.7	100.0 (1169)	23.315 (15)
	비정규직	24.7	23.5	22.4	11.8	9.4	8.2	100.0 (85)	
	자영업	28.9	15.6	20.0	14.4	16.7	4.4	100.0 (90)	
	비취업	33.3	26.3	17.3	16.7	4.5	1.9	100.0 (156)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27.7	21.9	22.9	13.3	8.5	5.6	100.0 (998)	4.478 (5)
	외벌이	28.7	23.1	19.1	15.9	8.2	5.0	100.0 (502)	

\*  $p < .05$ , \*\*  $p < .01$

▶ 부모들이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은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은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17.9%),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14.9%),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11.5%)이었으며, 가장 응답률이 낮은 기초 역량은 수리력으로 3.0%였으며, 문해력(4.1%), 정보인식 및 활용능력(4.5%) 순으로 낮았음.
- 자녀가 영아반인 경우 기초적 자조기술능력, 자녀가 유아반인 경우 대소근육발달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기]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에 중요한 기초 역량								계(수)	$\chi^2(df)$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기초적 자조 기술 능력	대소 근육 발달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인식 및 활용	문해력			수리력
전체		24.7	17.9	14.9	11.5	10.8	8.8	4.5	4.1	3.0	100.0 (1500)	
자녀 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25.0	17.8	14.4	8.8	11.8	8.0	5.6	4.8	3.8	100.0 (500)	31.035* (16)
	유아반(만3~5세반)	25.6	17.4	16.2	15.4	7.2	7.8	3.4	3.8	3.2	100.0 (500)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23.4	18.4	14.0	10.2	13.4	10.6	4.4	3.6	2.0	100.0 (500)	
자녀수	1명	25.5	17.3	14.2	10.2	12.0	8.5	4.3	4.9	3.1	100.0 (797)	16.820 (16)
	2명	24.3	18.9	14.6	13.0	9.7	8.5	4.9	3.3	3.0	100.0 (610)	
	3명 이상	20.4	16.1	22.6	12.9	7.5	12.9	3.2	2.2	2.2	100.0 (93)	

구분	영유아기에 중요한 기초 역량										계(수)	$\chi^2(df)$
	자신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기초적 자조 기술 능력	대소 근육 발달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인식 및 활용	문해력	수리력			
응답자 성별	아버지	21.7	19.3	14.7	11.3	10.6	9.8	5.1	4.5	3.1	100.0 (805)	12.416 (8)
	어머니	28.1	16.3	15.1	11.7	11.1	7.6	3.7	3.6	2.9	100.0 (695)	
취업 상태	정규직	24.6	18.3	15.2	10.3	10.2	9.4	4.8	3.9	3.3	100.0 (1169)	36.366 (24)
	비정규직	23.5	11.8	18.8	12.9	14.1	5.9	5.9	4.7	2.4	100.0 (85)	
	자영업	22.2	21.1	6.7	11.1	14.4	10.0	5.6	6.7	2.2	100.0 (90)	
경제활동 상태	비취업	27.6	16.0	14.7	19.9	11.5	5.1	0.6	3.2	1.3	100.0 (156)	4.745 (8)
	맞벌이	24.9	18.0	14.8	10.4	11.3	8.8	4.7	3.8	3.1	100.0 (998)	
	외벌이	24.1	17.5	14.9	13.5	9.8	8.8	4.0	4.6	2.8	100.0 (502)	

\*  $p < .05$

▶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 중 현재 자녀 이용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함.

- 기본생활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신체운동·건강(43.6%), 의사소통(38.1%), 사회관계(36.8%), 자연탐구(29.7%), 예술경험(19.5%) 순으로 나타남.

[표 8]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 중 자녀 이용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 이용 기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계(수)	
	기본생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전체	45.1	43.6	38.1	36.8	29.7	19.5	-	
자녀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45.8	46.6	34.2	33.8	26.4	20.2	(500)
	유아반(만3~5세반)	44.4	40.6	42.0	39.8	33.0	18.8	(500)

▶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을 조사함.

- 신체운동·건강이라는 응답이 2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회관계(25.8%), 기본생활(22.3%), 의사소통(20.1%), 자연탐구(2.3%), 예술경험(2.2%)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성별, 취업 상태에 따라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임.

[표 9]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내용 중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기에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						계(수)	$\chi^2(df)$	
	신체운동, 건강	사회 관계	기본 생활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전체	27.3	25.8	22.3	20.1	2.3	2.2	100.0 (1000)	-	
자녀소속반 (학급)	영아반(0~만2세반)	28.0	22.8	22.4	21.8	2.4	2.6	100.0 (500)	5.881
	유아반(만3~5세반)	26.6	28.8	22.2	18.4	2.2	1.8	100.0 (500)	(5)
자녀수	1명	26.8	26.8	22.6	20.0	2.0	1.8	100.0 (541)	4.601 (10)
	2명	28.5	23.6	21.8	20.8	2.7	2.5	100.0 (403)	
	3명 이상	23.2	32.1	23.2	16.1	1.8	3.6	100.0 (56)	
응답자 성별	아버지	29.0	28.0	18.2	21.1	1.4	2.3	100.0 (517)	16.137** (5)
	어머니	25.5	23.4	26.7	19.0	3.3	2.1	100.0 (483)	
취업상태	정규직	27.7	26.0	21.3	20.8	1.7	2.4	100.0 (801)	33.527** (15)
	비정규직	22.8	28.1	12.3	31.6	3.5	1.8	100.0 (57)	
	자영업	39.6	18.9	24.5	11.3	3.8	1.9	100.0 (53)	
	비취업	19.1	27.0	36.0	11.2	5.6	1.1	100.0 (89)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27.5	26.1	21.7	20.2	2.1	2.4	100.0 (709)	1.284 (5)
	외벌이	26.8	25.1	23.7	19.9	2.7	1.7	100.0 (291)	

\*\*  $p < .01$

▶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내용 외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을 서술형 질문으로 조사함.

- 그 결과,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18.3%), 다양한 체험 활동(13.6%), 공동체 의식(배려심)을 심어주는 경험(6.1%), 자연 친화적인 경험(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4.5%)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10]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외에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단위: %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비율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	18.3
다양한 체험 활동	13.6
공동체 의식(배려심)을 심어주는 경험	6.1
자연 친화적인 경험	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4.5
자주성을 높이는 활동	4.0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	3.9
사회적 규범,예절을 익히는 경험	3.8
협동심을 키우는 활동	3.4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내용	비율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	3.3
창의성을 기르는 활동	3.1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활동	1.9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경험	1.9
적응력을 높이는 경험	1.3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	1.2
언어(외국어)능력 향상 활동	1.1
자아를 인식, 확립할 수 있는 경험	1.0
자연 보호 의식을 기르는 경험	0.8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롭게 사고 할 수 있는 활동	0.8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0.7
(해외) 여행	0.7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0.7
긍정적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0.7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경험	0.6
독서 활동	0.5
예술 활동	0.5
옳고 그름을 아는 경험	0.5
안전 훈련	0.5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경험	0.4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경험	0.4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	0.3
정리정돈, 위생 관념을 기르는 경험	0.3
인내심을 기르는 경험	0.3
신뢰감을 쌓는 경험	0.3
책임감을 기르는 활동	0.1

### 3 전문가 의견

▶ 유아교육, 보육, 교육과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20명 기준(CVR=0.42)보다 높은 0.7로 나타났고,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또한 0.5로 나타남.

-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의 핵심역량의 타당도 또한 0.7로 나타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식함.

[표 11] 「2022 개정 교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및 핵심역량에 대한 타당도

단위: 점(%)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전혀 타당하지 않다	별로 타당하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한 편이다	매우 타당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	1(5.0)	2(10.0)	15(75.0)	2(10.0)	3.90	.64	0.7	20(100.0)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의 타당도	-	-	5(25.0)	12(60.0)	3(15.0)	3.95	.60	0.5	20(100.0)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타당도	-	-	3(15.0)	12(60.0)	5(25.0)	4.10	.64	0.7	20(100.0)

주: 1) 평균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점~'매우 타당하다'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타당한 편이다 응답자수+매우 타당하다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심신이 건강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에 대해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분석함.

- 윤리적인 사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되었으며,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자주적인 사람의 각각 0.56으로 합의해 도달함.

[표 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점(%)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심신이 건강한 사람	1(5.6)	2(11.1)	1(5.6)	6(33.3)	8(44.4)	4.00	1.24	0.56	18(100.0)
2) 윤리적인 사람	3(16.7)	2(11.1)	2(11.1)	6(33.3)	5(27.8)	3.44	1.46	0.22	18(100.0)
3) 자주적인 사람	1(5.6)	1(5.6)	2(11.1)	5(27.8)	9(50.0)	4.11	1.18	0.56	18(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인간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배려(양보)하는 사람, 탐구심이 많은 사람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모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기각됨.

[표 13]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추가해야 할 인간상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점(%)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감정조절과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	2(11.1)	4(22.2)	1(5.6)	3(16.7)	8(44.4)	3.61	1.54	0.22	18 (100.0)
2) 자신감 있는 사람	2(11.1)	3(16.7)	2(11.1)	9(50.0)	2(11.1)	3.33	1.23	0.22	18 (100.0)
3) 배려(양보)하는 사람	3(16.7)	3(16.7)	2(11.1)	6(33.3)	4(22.2)	3.28	1.45	0.11	18 (100.0)
4) 탐구심이 많은 사람	2(11.1)	2(11.1)	3(16.7)	6(33.3)	5(27.8)	3.56	1.34	0.22	18 (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함.

- 공동체 역량을 제외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함.

[표 14]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영유아기 적용에 대한 타당도 인식: 1차 조사결과

단위: 점(%)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자기관리 역량	0(0.0)	2(10.5)	1(5.3)	6(31.6)	10(52.6)	4.26	.96	0.88	19 (100.0)
2) 지식정보처리 역량	0(0.0)	5(26.3)	1(5.3)	7(36.8)	6(31.6)	3.74	1.16	0.53	19 (100.0)
3) 창의적 사고 역량	0(0.0)	0(0.0)	2(10.5)	9(47.4)	8(42.1)	4.32	0.65	1	19 (100.0)
4) 심미적 감성 역량	0(0.0)	2(10.5)	1(5.3)	4(21.1)	12(63.2)	4.37	0.98	0.88	19 (100.0)
5) 협력적 소통 역량	0(0.0)	0(0.0)	2(10.5)	4(21.1)	13(68.4)	4.58	0.67	1	19 (100.0)
6) 공동체 역량	0(0.0)	1(5.6)	4(22.2)	4(22.2)	9(50.0)	4.17	0.96	0.44	18 (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인지 능력(호기심, 사회성, 자제력, 열정, 낙관성, 유연성, 감사하는 마음, 회복 탄력성 등)을 강화하는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신체조절 능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 습관’, 인내심, 배려, 문제해결력, 자신감,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제시함.

▶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을 9가지로 제시하여 타당도를 분석함.

- 문해력, 수리력, 정보인식 및 활용을 제외한 대소근육 발달,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 문제해결 능력,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합의에 도달함.

[표 15] 영유아기에 길러야 할 능력(역량)에 대한 타당도 인식

단위: 점(%)

구분	타당도					M	SD	CVR	계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1) 대소근육 발달	1(5.3)	2(10.5)	2(10.5)	1(5.3)	13(68.4)	4.21	1.28	0.65	19 (100.0)
2) 기초적 자조기술 능력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1(5.3)	1(5.3)	1(5.3)	3(15.8)	13(68.4)	4.37	1.15	0.88	19 (100.0)
3) 문해력	1(5.3)	2(10.5)	5(26.3)	6(31.6)	5(26.3)	3.63	1.16	0.29	19 (100.0)
4) 수리력	1(5.3)	3(15.8)	7(36.8)	4(22.2)	4(22.2)	3.37	1.15	-0.06	19 (100.0)
5) 정보인식 및 활용	1(5.3)	3(15.8)	6(31.6)	5(26.3)	4(22.2)	3.42	1.11	0.06	19 (100.0)
6) 문제해결 능력	1(5.3)	1(5.3)	4(22.2)	7(36.8)	6(31.6)	3.84	1.08	0.53	19 (100.0)
7) 규칙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1(5.3)	0(0.0)	2(10.5)	4(22.2)	12(63.2)	4.37	1.05	0.88	19 (100.0)
8) 자신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1(5.3)	0(0.0)	3(15.8)	2(10.5)	13(68.4)	4.37	1.11	0.76	19 (100.0)
9) 타인의 정서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	1(5.3)	0(0.0)	3(15.8)	5(26.3)	10(52.6)	4.21	1.07	0.76	19 (100.0)

주: 1) 평균은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하여 산출함.

2) CVR은 '약간 높음 응답자수+매우 높음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2'를 전체응답자수/2로 나눈값임.

▶ 제시한 9가지 능력(역량)에서 추가, 수정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역량과 능력의 구분 필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서와 관련된 대인관계역량이므로 의사소통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이 지적됨.

## 4 제언

▶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도 인성과 감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부모와 전문가 모두 비인지적 역량을 영유아기의 핵심으로 인식함. 이는 인지적 성취보다는 정직·배려·자기조절·협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이 인간 삶의 기초라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함.
-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과 맥을 같이함.

▶ 영유아기 핵심역량은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발달적 토대로 초등 이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

-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시한 ‘놀이 중심·유아 중심’ 접근은 ‘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OECD DeSeCo(2005)에서 제시한 ‘효과적 도구 활용’, ‘이질적 집단 간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범주와 구조적으로 유사함. 또한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이미 국제적 핵심역량 프레임과 높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부모·전문가 인식 결과를 통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음.
- OECD(2019)의 Learning Compass 2030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새로운 가치 창출(creating new value)’, ‘긴장 조정(reconciling tensions)’, ‘책임감(taking responsibility)’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은 정서적 안정, 공감, 사회적 협력, 자기조절과 같은 기초 비인지 역량을 토대로 형성된다고 설명함.
- 본 조사에서도 ‘자기관리’와 ‘협력적 소통’은 부모와 전문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됨.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영유아 단계에 적합한 하위역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핵심역량을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보육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

-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정직·배려·공동체 의식·자기조절 등을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영유아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음.
- Rychen과 Salganik(2003)은 핵심역량의 정의가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함. 따라서 향후 영유아 핵심역량 체계를 재구조화할 때, 이러한 ‘가치 기반 역량(value-based competencies)’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문화적 조정이 병행되어야 함.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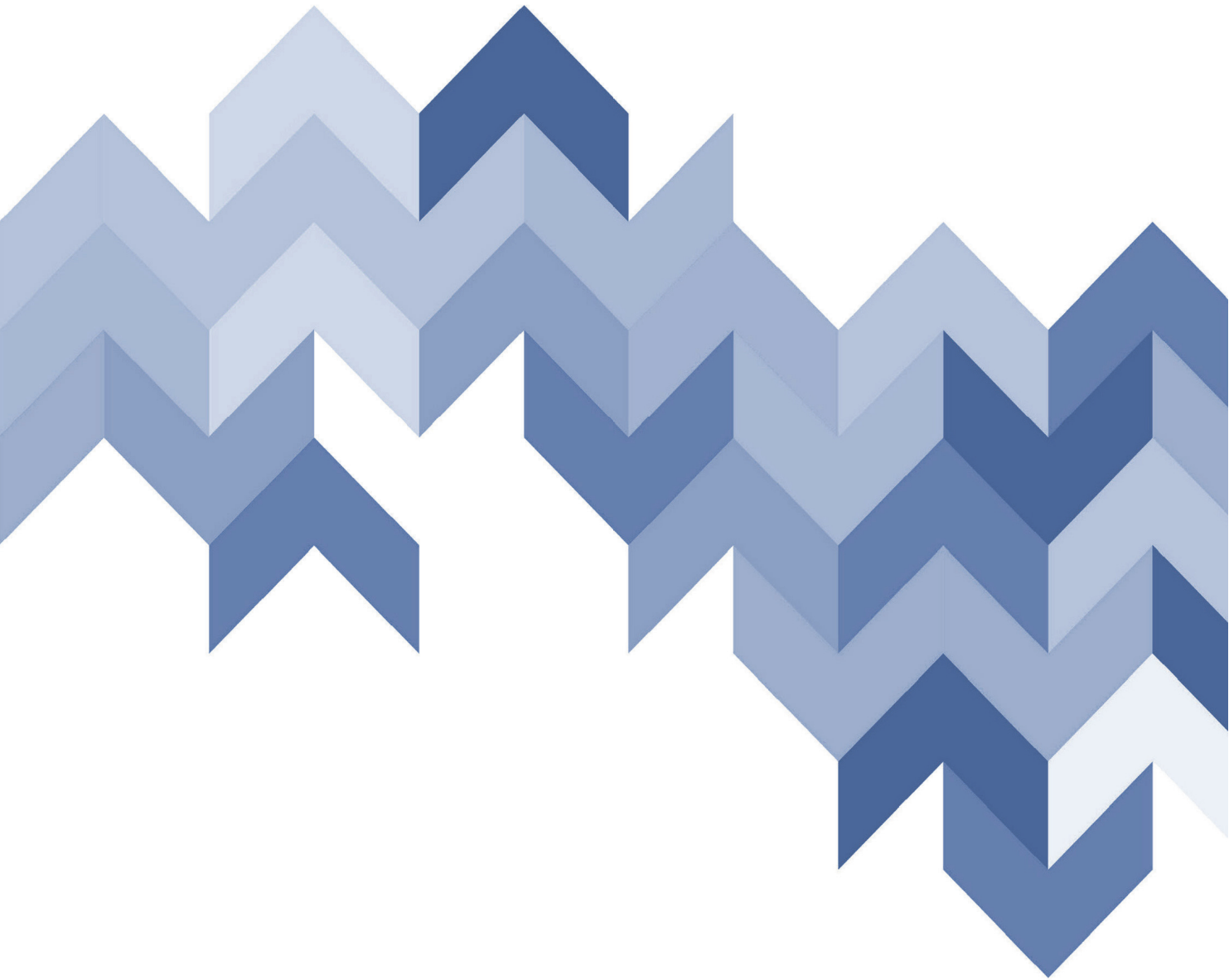
---

- 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김영옥. (2019). 유아중심 관점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사유(思惟). 유아교육연구, 39(2), 235-253.
  - 문복진. (2019). 유아 눈높이에서 '놀이'로 배우는 즐거움: 2019 개정 누리과정. 행복한 교육, 2019년 8월호. 세종: 교육부.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전효정, 손승희, 배선영, 김유미, 김지연, 유주연, 정정희,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 김민솔, 강현주(2024).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II):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세종: 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이완정, 임여정, 권혜진, 김유미, 김지연, 신윤승, 정정희, 임수진,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 (2023).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 I ):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세종: 육아정책연구소·경제·인문사회연구회.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Learning Compass 2030: Concept Note. Paris: OECD Publishing.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Göttingen: Hogrefe & Huber.
-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eyny@kicce.re.kr

2025 KICCE

#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